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7228

2019년 2월
박사학위 논문

영어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 연구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영어영문학과
강 호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어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 연구

A Study on English Object Experiencer Psych Verbs

2019年 2月 25日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英 語 英 文 學 科

강 호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어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 연구

指導敎授 최 영 주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신청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0月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英 語 英 文 學 科

강 호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姜好映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 審	朝鮮大學校 敎授	김채은	㊞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김남희	㊞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고언숙	㊞
委 員	全南大學校 敎授	신근영	㊞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최영주	㊞

2018年 1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목적과 배경 ····· 1

1.2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 5

2. 문헌 연구 ····· **7**

2.1 감정과 언어 ····· 7

2.2 영어 심리동사 ····· 8

2.3 OE 심리동사 통사론 ····· 10

2.4 OE 심리동사 의미론 ····· 14

2.5 심리동사 주어실현 원칙 ····· 16

2.6 머릿속 사전과 심리실험 ····· 19

2.7 한국인 영어 학습자 OE 심리동사 습득 연구 ····· 20

3. 연구방법 ····· **22**

3.1 OE 심리동사 분석 ····· 22

3.2 코퍼스 분석 ····· 23

3.3 심리 실험 ····· 28

4. 연구결과 ····· **30**

4.1 코퍼스 분석 ····· 30

4.1.1 영어 원어민 코퍼스 ····· 30

4.1.2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 ····· 32

4.2 심리실험 분석 ····· 34

4.2.1 영어 원어민 심리실험 결과 ····· 34

4.2.2 한국인 영어 학습자 심리실험 결과 ····· 3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논의 ····· **40**

5.1 영어 원어민 코퍼스 논의: 기본 감정과 2차 감정의 분화 ····· 40

5.2 영어 원어민 심리실험의 의미 ····· 48

5.3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심리 실험 논의 ····· 51

6. 결론 ····· **58**

참고문헌 ····· **6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Surprise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 ····· 30
<표 2> 코퍼스에서 원어민의 각 OE 심리동사별 -ing와 -ed 빈도 ····· 31
<표 3> 코퍼스에서 원어민의 OE 심리동사별 -ing와 -ed 우세 분류 ··· 32
<표 4> 코퍼스에서 한국인 학습자의 심리동사별 -ing와 -ed 빈도 ····· 33
<표 5> 코퍼스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의 심리동사별 우세 분류 ····· 34
<표 6> 코퍼스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 비교 ····· 34
<표 7> 영어 원어민의 심리 실험에서 -ing와 -ed 빈도 ····· 36
<표 8> 심리 실험에서 영어 원어민의 심리동사별 -ing, -ed 우세 분류 37
<표 9>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심리 실험에서 -ing와 -ed 빈도 ····· 38
<표 10> 심리실험에서 한국인학습자의 심리동사별 -ing, -ed 우세 분류39
<표 11> 이론적 접근을 통한 OE 심리동사 원형의미 ····· 40
<표 12> 코퍼스에서 영어 원어민의 각 OE 심리동사별-ing, -ed 우세 분류 · 41
<표 13> 인간의 기본 감정 주요 연구 ····· 42
<표 14> 감정의 층위와 OE 심리동사 중심 의미 ····· 43
<표 15> Plutchik 감정 강도 분류와 본 연구 비교 ····· 46
<표 16> 감정의 흐름과 OE 심리동사 분류 ····· 47
<표 17> 영어 원어민의 코퍼스와 심리 실험에서 OE 심리동사 비교 ···· 48
<표 18> 코퍼스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 비교 ····· 52
<표 19> 심리실험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 비교 ····· 53
<표 20> 중/고교 6권 영어교과서의 OE 심리동사 빈도 ····· 5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14b)에 대한 수형도 ····· 11
<그림 2> 동사구 분할 구조를 통한 14a)와 14c)의 수형도 ····· 12
<그림 3> 15a)와 15c)에 대한 수형도 ····· 13
<그림 4> 16c) 개념 구조에 대한 나무 구조 ····· 14
<그림 5> COCA 프로그램 화면 ····· 24
<그림 6> Surprising에 대한 코퍼스 POS Tagging 적용 후 화면 ····· 25
<그림 7> Surprised에 대한 코퍼스 POS Tagging 적용 후 화면 ····· 25
<그림 8> Surprising의 콘코던스 화면 ····· 26
<그림 9> AntConc의 콘코던스 화면 ····· 27
<그림 10> Plutchik의 감정 팽이 ····· 4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English Object Experiencer Psych-Verbs

By Ho-young, Kang
Advisor : Prof. Youngju Choi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totypes of English Object-Experiencer (OE) psych verbs based on corpus-based investigation and psycholinguistic experiments.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how Korean learners of English conceptualize OE psych verbs by comparing the empirical data of native English speakers' and those of Korean learners'. OE psych verbs can have two prototypes. If the prototype of the OE psych verbs has a stimulus subject, then the verb form will be *-ing*. However, the prototype has an experiencer subject, then the verb form will be *-ed*. To figure out which of the two structures is the prototypical one, this study selected twelv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OE psych verbs, and then analyzed the frequencies of '*-ing*' and '*-ed*' forms of each OE psych verb in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a native English speaker corpus and Gachon Corpus, a learner corpus. Moreover, psycholinguistic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psycholinguistic aspect of language users about the use of OE psych verbs and to complement the corpus study.

The results of the COCA-based investigation and the experiments of native speakers show that the twelve English psych verbs, such as surprise, amuse, excite, embarrass,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tire, exhaust, satisfy, and please,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g* predominance' verbs and '*-ed* predominance' verbs. Regarding the two categor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sych verbs showing the principal emotions, i.e., surprise, satisfy, and please are '*-ed* predominance' verbs and the psych verbs showing the secondary emotions, i.e., interest, excite, and bore, are '*-ing* predominance' verb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results of Gacheon Corpus-based investigation and the experiments of Korean learners show that Korean learners of English acquired the similar prototype concepts about OE psych verbs as shown in native English speakers' analysis. It seems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native English speakers' OE psych verbs was reflected in the textbooks Korean learners are exposed to. Also, language users' universal intuitions related to emotions seem to work on those classifications of the prototypical sense of OE psych verbs. Regarding differences between native speakers and non-native speakers, it is suggested that Korean learners of English tend to use one form continuously, once chosen, which is called fossilization, leading to erroneous use of psych verbs.

Key words : Object-Experiencer Psych Verbs, Prototype, Corpus Study, Psycholinguistic Experiment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서 론[1)]

1.1 연구목적과 배경

본 연구는 영어 동사 중 frighten, surprise, please, interest 등과 같이 경험자(Experiencer) 논항이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이른바 목적어 경험자(Object Experiencer, 이하 OE) 심리동사를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 언어 이론에서 OE 심리동사를 어떻게 연구하였는지 밝히고, 이러한 언어이론과 차별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자료인 코퍼스(corpus)를 분석하고 심리실험을 통해서 OE 심리동사의 논항관계와 빈도를 조사하여, '자극 *-ing*' 중심 OE 심리동사와 '경험자 *-ed*' 중심 OE 심리동사로 분류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OE 심리동사의 세부 유형이 인간의 감정을 반영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OE 심리동사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영어 OE 심리동사는 "심리적인 상태"(Levin, 1993, p. 188)나 "인간의 감정"(Grafmiller, 2013, p. 10)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심리를 가지는 참여자인 경험자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다. 영어의 OE 심리동사는 통사와 의미, 그리고 심리 언어적으로 상당히 특별한 점이 있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 왔다 (Grimshaw, 1990; Jackendoff, 1990; Lakoff, 1970; Pollard & Sag, 1992; Pullum 1987; Talmy, 1985). OE 심리동사의 내부 구조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의 다른 표현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 예문에서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대개의 영어 문장들은 '경험자 논항'을 주어로 사용한다.

1) a. I am sad. (happy, lonely, glad)
   b. I like birds. (hate, fear, love)
   c. 철수는 공룡을 무서워한다.

(1b)의 심리동사를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와 구별하여, 주어 경험자(Subject-Experiencer: 이하 SE) 심리동사라고 명명한다(Levin, 1993, p. 188). 이러한

1) 본 연구는 본인의 논문(강호영, 2018)을 확장 수정한 것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E 동사들은 인간의 심리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 주어자리에 경험자 논항을 사용하므로, 특별히 주어자리의 경험자 논항과 목적어 자리의 자극논항이라는 논항의 위치가 의미가 있지는 않다. 이는 (1b)의 like, hate, love등의 동사 표현이 주어 경험자를 중심논항으로 사용하여, 주어 경험자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르게 영어 OE 심리 동사는 해당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주어 자리가 아닌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다. 아래 예문은 영어의 심리동사와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심리동사 표현을 비교한 것이다.

2) a. 제이슨은 공룡을 무서워한다.
b. ? 공룡이 제이슨을 무섭게 한다.
c. The dinosaurs frighten Jason. (Grafmiller, 2013, p. 11)

(2c)와 같이, 영어 OE 심리동사 구조에서 주어 자리에는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 the dinosaurs가 나타나며, 감정을 경험하는 '경험자'인 Jason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다. 이는 (2a)에서처럼 '경험자'가 주어자리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경우를 고려하자면 언어비교학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언어 화자의 보편적 문장 구성과도 다르다.

3) a. The movie surprised John. (frighten, interest, please)
b. John was surprised. (중심 의미)
c. The movie was surprising. (부가적 의미)

(3a)에서처럼,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표현인 심리동사인데도, 다른 표현들과 다르게 영어의 OE 심리동사는 논항이 '자극 - 경험자'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러한 논항의 순서가 나타나는 언어학적 근거를 찾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논항들과 심리동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OE 심리동사의 중심논항은 경험자 논항이라고 주장했다(Levin, 1993; Postal, 1971; Croft 1993). 비록 OE 심리동사에서는 자극 논항이 주어자리에 나타나며, 경험자 논항이 목적어 자리이지만, 의미적으로 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간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심리동사라는 것을 고려하여, OE 심리동사의 중심논항은 경험자 논항이라고 주장하였다. 대개의 문장에서 중심논항은 주어이다. 그러나 OE 심리동사는 독특한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E 심리동사의 타동사 문장은 중심논항을 표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며, 단지 타동성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심논항이 주어가 아닌 목적어 자리의 경험자 논항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해왔다. 하나의 타동사 문장을 분석하여, (3b)의 경험자 John이 주어가 되어 '*-ed*' 술어를 가지는 형태와 (3c)의 자극 the movie가 주어가 되어 '*-ing*' 술어를 가지는 형태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리 구조 속에서 (3a)의 타동사구조의 중심의미는 (3b)의 '경험자 *-ed*'라고 파악하는 방식의 설명이 사용되었다.

Levin(1993)은 OE 심리동사 구조에서 자극 논항과 경험자 논항을 분리하여, OE 심리동사의 중심 논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어이론적 근거를 제안하였다. (3a)의 타동사 구조에서 두 개의 논항과 동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극 논항'과 '경험자 논항'을 분리하여 동사의 명사형을 만들었다.

4) a. The clown amused the children.
   b. the children's amusement (at the clown)
   c. *the clown's amusement of the children (Levin, 1993, p. 192)

(4a)의 'amused'를 명사화 하였을 때, (4b)는 가능하지만 (4c)는 (4a)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며, 불가능한 문장이다. 이러한 논항과 동사와의 관계를 근거로 Levin은 OE 심리동사의 중심의미가 '경험자 논항 - 심리 상태 술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OE 심리동사의 원형 연구는 Postal(1971)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Postal은 (5b)와 (6b)의 문장은 표층구조로서 심층구조가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5b)와 (6b)문장의 '자극 *-ing*'구조는 (5a)와 (6a)의 '경험자 *-ed*'구조라는 심층구조가 '심리이동(psych-movement)' 이라는 변형규칙에 의해 도출 되어진 것이라고 나타내어, 통사론적으로도 중심의미는 '경험자 *-ed*'라는 것을 제안했다.

5) a. I am amused with Harry.
   b. Harry is amusing to m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a. I am frightened by that.
b. That is frightening to me. (Postal, 1971, p. 42)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OE 심리동사의 중심논항과 원형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자극논항- 서술어- 경험자논항]의 순서배치에서는 경험자논항이 원형의미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전통적인 통사론과 의미론의 분석을 통해서 OE 심리동사의 목적어인 경험자 논항이 술어와의 관계(*-ed*)를 통해 원형의미를 만든다.

그러나 이처럼 한 방향으로 명확히 치우쳐진 이론적 분석이 경험적 자료인 코퍼스 분석과 심리실험의 분석을 근거로 하면 이론적 분석과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12개의 주요 OE 심리동사에 대한 원어민 코퍼스,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 원어민 심리실험, 한국인 학습자 심리실험을 통해 각 OE 심리동사별로 우세한 형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영어 원어민 코퍼스인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에서 주요 OE 심리동사의 '*-ing*'와 '*-ed*' 형태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심리실험을 통해 '*-ing*'와 '*-ed*' 중 어느 형태가 주요 OE 심리동사와 관련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요 OE 심리동사들은 '*-ing*'와 '*-ed*' 형태에 대해 동사별로 양쪽에서 모두 빈도가 발생하였으나, *-ing*를 선호하는 동사와 *-ed*를 선호하는 동사로 나뉘어졌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OE 심리동사를 '경험자 *-ed*' 중심 OE 심리동사와 '자극 *-ing*' 중심 OE 심리동사로 분류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류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 언어가 표현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여러 가지 문헌들과 비교를 통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경험자 *-ed*' 중심 OE 심리동사 부류는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이며, '자극 *-ing*' 중심 OE 심리동사 부류는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이다. 이 결과는 심리동사의 구별이 인간의 기본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기체의 생존과 관련이 되는 '핵심감정'은 '경험자 *-ed*' 중심 OE 심리동사로 나타나며, 흥미처럼 생존보다는 자극의 속성과 관련된 '2차감정'은 '자극 *-ing*' 중심 OE 심리동사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연구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OE 심리동사의 성격과 원형의미에 대한 연구는 영어 원어민의 개념화를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언어로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개념화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OE 심리동사의 사용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다. OE 심리동사를 사용하려 할 때, '경험자 논항'을 주어로 하여 심리 동사를 '*be -ed*' 형태로 사용할지, '자극 논항'을 주어로 하여 심리동사를 '*be -ing*'로 사용할 지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OE 심리동사 습득을 연구하기 위하여, 영어 원어민의 개념화를 파악하기 위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코퍼스인 가천 코퍼스(최지웅, 2013)를 사용하여 OE 심리동사에 대한 빈도를 파악하였으며, 심리실험을 통해 코퍼스의 데이터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 대한 코퍼스 분석결과는 shock를 제외한 모든 동사들이 원어민 코퍼스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심리 실험 결과는 3개의 동사(shock, satisfy, amuse)를 제외하고 9개의 동사에서 원어민 심리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정리하면, 영어 OE 심리동사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전통적인 이론인 통사론, 의미론, 심리언어이론의 관점을 연구하고, 이를 경험적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경험적 자료는 영어 원어민 코퍼스와 심리실험, 그리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와 심리실험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경험적 자료의 결과는 감정과 관련된 문헌과 비교하여, 이를 논의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논문구성

본 소절에서는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론적 근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퍼스(Corpus) 분석과 심리실험을 수행하여, OE 심리동사를 연구하였다. 코퍼스 언어학은 전통적인 이론언어학적 연구에 실제 언어 사용 차원을 적용한 것으로, 1990년대부터 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코퍼스는 '말뭉치'라는 의미로, 자연언어 텍스트를 모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언어자료를 전산화 처리한 것이다(권혁승 · 정채관, 2012). 전산화된 언어자료는 분석 툴을 통해, 어휘빈도, 콘코던스(concordance), 연어관계(Collocation)등을 추출하여, 실제 언어자료를 분석하고, 규칙을 찾아 이론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방법론이다(Teubert & Krishnamurthy, 2007). 이러한 코퍼스 자료를 통해, OE 심리동사의 실제 사용을 파악하고, 전통적인 언어학자의 내성적 연구를 통해 정립된 결과들과 비교하여 내성적 연구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예상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본 연구는 언어 사용자의 심리동사 사용에 대한 직관을 살피기 위해 연구 도구로서 심리실험을 사용하고 있다. 코퍼스 데이터가 언어 사용에 대해 구체성을 더해주는 것처럼, 언어화자의 인지를 연구하는 인지언어학적 접근은 해당 주제에 대한 언어화자의 불투명한 인지과정을 즉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Just & Carpenter, 1980). 언어화자에 대한 인지실험은 OE 심리동사에 대한 원어민과 한국인 학습자의 인지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OE 심리동사의 원형분석에 심리언어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코퍼스는 언어 사용자가 생산해 놓은 문장들을 대량으로 모아놓은 것으로 컴퓨터 분석에 용이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언어 표현들에 대해 언어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해당 문장을 생산한 언어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연구를 위해 필요한 특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심리 실험이다. 심리 실험은 연구자가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 현상을 알기 위해 필요한 문장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 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사용자의 인지와 언어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사용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OE 심리동사라는 주제를 고려하여, 코퍼스 자료에 더하여, 심리실험을 사용함으로써 경험적 자료의 타당성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주제인 OE 심리동사의 원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통사론과 의미론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과 대상을 논의하고, 사용될 영어 원어민 코퍼스와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 그리고 언어심리 실험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4장에서는 코퍼스 분석과 심리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보여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논의점에 대해, 본 논문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다양한 언어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6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정리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문헌연구

2장의 문헌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감정 표현, 영어 심리동사 개요, 통사론, 의미론, 의미역이론, 심리실험의 주요 원리, 그리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심리동사 습득 기존 연구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통사, 의미론, 그리고 의미역 이론을 통해 OE 심리동사의 전통적인 연구들이 OE 심리동사의 타동사 문장을 사역(cause)구조로 파악하여, 주어인 자극 논항을 외부의 사역자(causer)로 보며, 이 사역자가 문장의 중심 논항인 목적어 경험자의 감정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OE 심리동사 습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다른 OE 심리동사 습득을 가지게 되는 배경으로 한국어의 간섭현상을 제안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관점에서 OE 심리동사의 습득의 문제점은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다(5장 논의 참조).

2.1 감정과 언어

한국어에서는 감정과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 형용사와 동사를 사용한다. 이 때, 심리형용사와 심리동사의 주어에는 경험자 논항이 나타난다.

7) a. 영희가 괴롭다. (심리 형용사)
   b. 영희가 괴로워한다. (심리 동사)
   (손현덕과 김희숙, 2011, P. 145)

김세중(1994)에 따르면, 외부의 자극을 주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동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동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사동접사인 '-이-/-히-/-리-/-기-/-우-/-구-/-추-'를 심리형용사에 붙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게 하다'라는 보조 동사를 심리 형용사에 추가하는 것이다.

8) a. 영어가 영희를 괴롭힌다. (사동접사 사역형)
   b. 영어가 영희를 괴롭게 한다. (보조 동사 사역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러나 사동접사를 부착하여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사역형은 일부 형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보조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9) a. 괴롭다: 괴롭히다 괴롭게 하다
b. 놀라다: 놀래키다 놀라게 하다
c. 즐겁다: *즐겁히다 즐겁게 하다
d. 슬프다: *슬프기다 슬프게 하다
e. 신나다: *신나키다 신나게 하다
f. 화나다: *화나기다 화나게 하다
g. 기쁘다: *기쁘기다 기쁘게 하다
h. 지루하다: *지루키다 지루하게 하다
i. 걱정하다: *걱정기다 걱정하게 하다

한국어는 하나의 심리 형용사에 사동접미사를 붙이거나 보조동사를 사용하므로, 경험자 논항이 주어가 되던, 자극 논항이 주어가 되던, 같은 심리 형용사가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의 심리동사의 활용은 영어와는 차이가 있다. 영어의 경우, 주어가 경험자 논항일 때와 자극 논항일 때는 각각 다른 동사가 사용된다.

10) a. Jane <u>fears</u> the ghost. (경험자 주어)
b. The ghost <u>frightens</u> Jane. (자극 주어)

이 때 각 동사의 자질은 fear는 [-사동]이며, frighten은 [+사동]을 나타내지만, 같은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한국어에서 한 심리동사가 활용형만 변화하여, [+사동], [-사동]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하면, 영어에서 동사 자체가 바뀌어 사동을 나타내는 것은 두 언어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영어의 심리동사에 대해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2 영어 심리동사

Levin(1993)은 영어 동사 중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심리동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sych-verbs, Verbs of psychological state; 188)로 명명하고, 이를 두 가지 하위부류로 나누었다. 경험자 논항을 중심으로 하여, 심리동사를 경험자 논항이 주어인 admire 부류와 경험자 논항이 목적어인 amuse 부류로 구분하였다. 주어 경험자 심리동사 부류에 45개를 언급했으며, 목적어 경험자 동사 부류는 220개를 포함시켰다. Levin이 분류한 주요 심리동사는 다음과 같다.

11) a. 경험자 주어 심리동사

admire, adore, appreciate, cherish, enjoy, esteem, exalt, fancy, favor, idolize, like, love, miss, prize, respect, relish, revere, savor, stand, support, tolerate, treasure, trust, value, venerate, worship, dislike, envy, fear, hate, morn, pity, regret, abhor, deplore, despise, etc.

b. 경험자 목적어 심리동사

abash, affect, afflict, affront, aggravate, agitate, agonize, alarm, alienate, amaze, amuse, anger, annoy, antagonize, appall, appease, arouse, assuage, astonish, astound, awe, baffle, beguile, bewilder, bewitch, boggle, bore, bother, bug, clam, captivate, cheer, comfort, concern, confuse, content, convince, delight, depress, devastate, disappoint, disturb, encourage, embarrass, excite, exhaust, harass, humiliate, impress, interest, inspire, overwhelm, offend, mystify, mesmerize, puzzle, please, relax, relieve, satisfy, scare, shock, stimulate, stir, surprise, tease, terrify, threaten, thrill, throw, tire, torment, trouble, worry, wound, etc.

심리동사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논항을 경험자(experiencer)와 자극(stimulus)으로 보았으며, 자극 대신 때때로 주제(theme), 원인(cause), 감정의 대상(object of emotion), 감정의 목표(target of emotion)라는 의미역이 나타나기도 한다. 타동사로서, 경험자 주어 심리동사와 경험자 목적어 심리동사는 비슷한 구조를 보이지만, 문장을 관찰해 보면, 몇 가지 통사적 차이가 발견된다. 아래 (12b)에서처럼, 경험자 목적어 심리동사는 중간태(Middle Alteration)가 허용되나, 경험자 주어 심리동사부류는 (12d)에서처럼 중간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2) a. The clown amused the little children.
b. b. Little children amuse easily.
c. Tourists admire paintings.
d. * Paintings admire easily.

또한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의 활용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13b)에서는 경험자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으며, (13c,d)에서는 허사인 it을 통해 문장 보어인 that 절의 외치가 사용됨을 보여준다.

13) a. That joke never fails to amuse little children.
b. That joke never fails to amuse.
(PRO-Arb Object Alternation)
c. That the clown had a red nose amused the children.
d. It amused the children that the clown had a red nose.(Extraposition)
e. The Children were amused at the clown. (passive)
f. The clown was amusing to the children.
g. an amusing joke

(13e)에서는 수동 구조에서 경험자가 주어가 되며, (13f)에서는 자극 논항이 현재분사 -ing의 주어로 나타나며, 명사의 앞에서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구조(13g)를 보이기도 한다.

2.3 OE 심리동사 통사론

인지론적인 통사론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변형생성문법에서 지배결속이론으로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최소주의로 발전했다. 최소주의 이론에서 동사구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동사구 분할(VP-shells)의 도입이다. 이는 능격 동사(ergative verb, Radford, 2004)와 이중목적어 구조(Larson, 1988)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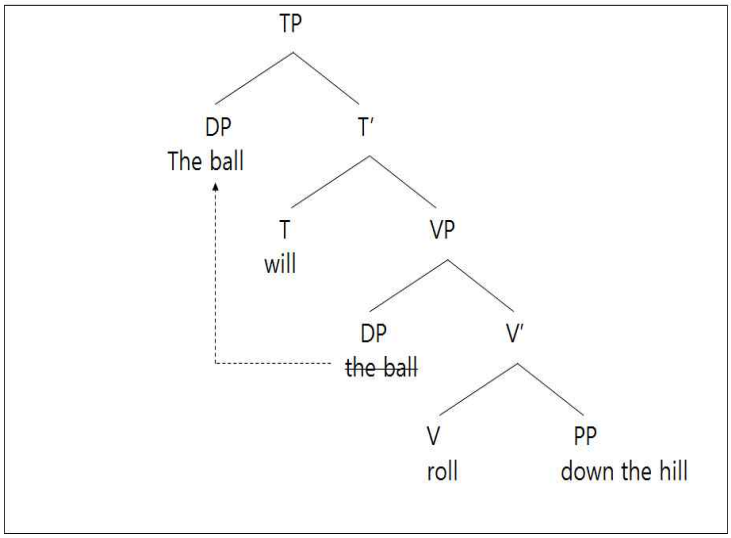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4) a. They will roll the ball down the hill. (Radford, 2004, p. 338)
b. The ball will roll down the hill.
c. They will make the ball roll down the hill.

(14a)의 타동사 구조에서 목적어 the ball은 (14b)의 자동사 구조에서 주어자리를 차지한다. 이러한 동사를 능격동사(ergative verb)라고 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VP를 두 개로 나누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제안 아래에서 (14a)는 (14c)처럼 사역동사가 있는 형태와 같다고 분석되어 진다. 그렇게 하면, (14b)의 자동사 구조와 (14c)의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구조가 동일하게 되어 능격(ergative)동사 구조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설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14b)에 대한 수형도(Radford, 2004, p.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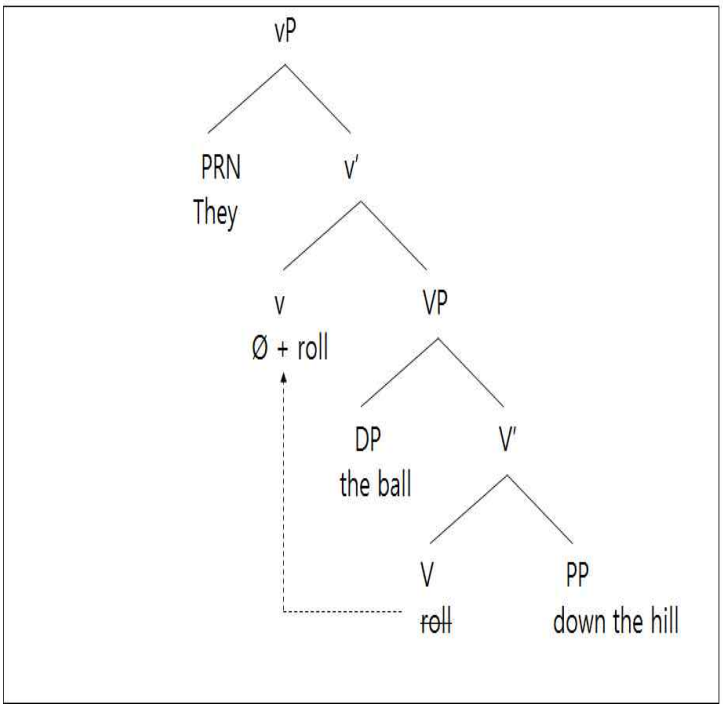


위 <그림 1>은 자동사 구조인 (14b)를 설명하는 수형도이다. (14a)의 paraphrase 구조인 (14c)의 동사구 분할(VP shell)을 나타내기에 앞서서, 주어인 DP the ball이 VP 안에서 발생하였고, T의 EPP자질에 의해 TP의 Spec자리로 이동해 나아가는 VP-Internal Subject 가설을 수형도로 나타낸 그림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2> 동사구 분할 구조를 통한 (14a)와 (14c)의 수형도
(Radford, 2004, p. 340)



위 <그림 2>의 (14c)는 (14a)의 paraphrase인데, 동사구 분할을 도입하여 (14a)의 타동사 구조를 사역 동사 구조인 (14c)로 바꾼 것이다. 동사구 분할 구조이론에 따르면, (14c) 'They will make the ball roll down the hill.'에서 make가 접사형태이며, null verb 로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경동사이다. 동사인 roll이 하위 VP에 관여하여 VP를 생성하고 난 후, 상위 vP의 v 자리에 합류한다고 여긴다. 주어는 vP안의 대명사가 Spec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하위 VP의 DP는 이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동사구조를 두 개로 나누면, 능격(ergative) 동사에서 왜 타동사의 목적어가 자동사의 주어가 되는지를 하나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동사구조의 동사구 분할 구조는 OE 심리 동사의 통사론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Arad(1998)는 OE 심리동사의 독특한 통사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동사구 분할 구조를 통해 자극과 경험자 논항을 설명하였다. (15a)의 frighten은 '자극 논항'을 주어로, '경험자 논항'을 목적어로 가지고 있다. (15b)에서, (15a)의 문장의 내부 통사 구조가 재설명되는데, 이는 경동사 make가 있고, 이 make가 the boy frightened를 VP 보충어(Complement)로 취한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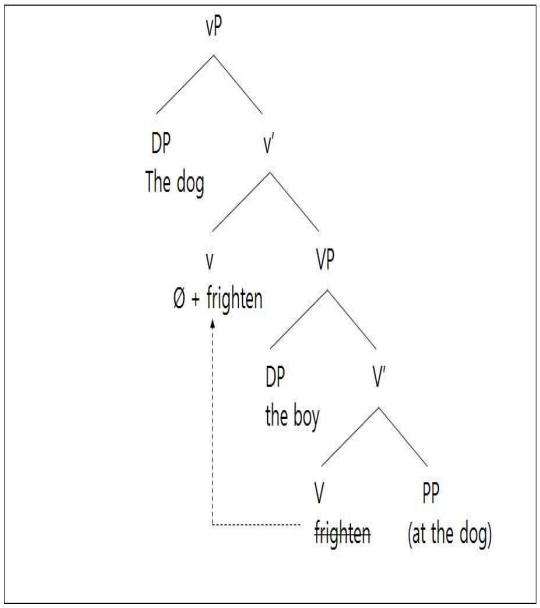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5) a. The dog frightened the boy.
b. The dog made the boy frightened (at the dog).

이 때 make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경동사이며, 아래 <그림 3>에서는 ∅로 나타내어지며, 접사형태로서 동사에 부가된다. 본동사인 frighten은 하위 VP에 관여하여, VP를 생성하고 난후, 상위 vP의 v자리에 합류한다. 이처럼 동사 구조를 두 개로 분할하여, 자극 논항은 경동사와 결합하고, 경험자 논항은 본동사인 frighten과 먼저 결합한 것으로 봄으로써, 경험자를 내부의 중심논항으로 판단했으며, 자극을 외부의 논항으로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동사구 분할 구조를 통해, OE 심리동사는 make가 있는 사역 구조이며, 목적어 경험자 논항은 술어인 심리동사와 결합하여, 내부의 중심 구조를 이루며, 주어인 자극 논항은 중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논항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15a)와 (15b)에 대한 수형도
(Grafmiller, 2013, p. 22)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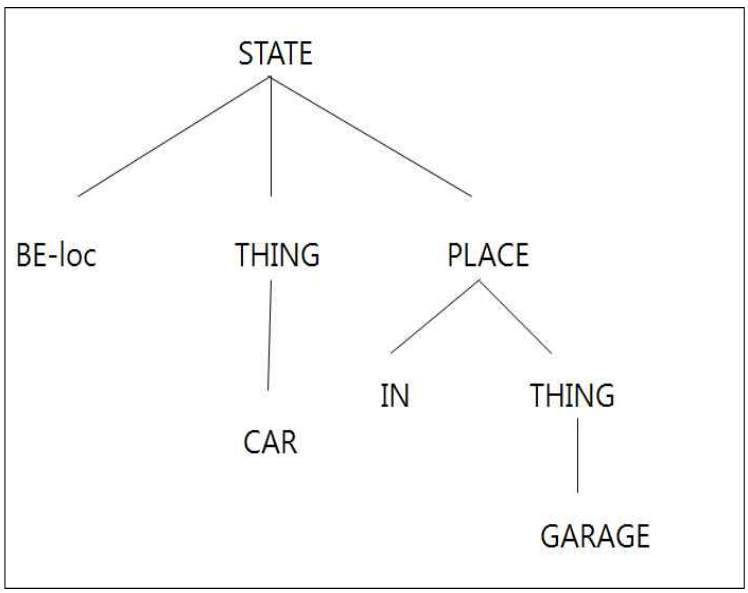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4 OE 심리동사 의미론

Jackendoff(1990)는 문장의미론 분야에서 매우 통찰력 있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영어 문장의 의미를 의미성분으로 분해하여 설명했다. 문장의 의미를 6가지 의미 범주로 분류하고, 개념구조를 활용하여 세부적인 의미론을 완성하였다. 그가 명명한 보편적인 6가지 의미범주는 사건(Event), 상태(State), 물질(Material Thing or Object), 경로(Path), 장소(Place), 속성(Property)이다.

16) a. The car is in the garage. (Saeed, 2003, p. 269)
b. [$_S$ [$_{NP}$ The car] [$_{VP}$ [$_V$ is] [$_{PP}$ [$_P$ in] [$_{NP}$ the garage]]]]
c. [State BE ([Thing CAR], [Place IN ([Thing GARAGE])])]

<그림 4> (16c) 개념구조에 대한 나무구조



(16a)의 문장 The car is in the garage는 (16c)의 개념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문장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문장의 의미가 움직임이 아니라 상태이므로, State BE이며, 두 가지 다른 의미 범주를 수반하고 있다. Thing CAR가 Place의 핵어(Head)인 IN의 Thing GARAGE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16c)의 개념 구조는 나무구조(그림 4)로 바꾸어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그는 의미 성분인 CAUSE를 도입하는데, 이는 함의(entailment)를 통해 그 정당성이 설명된다. (16a,b)의 문장들의 관계를 보면, George가 the dragon을 죽인 것은 the dragon이 죽은 것을 함의한다. Jackendoff는 16c)에서처럼 x가 사건 E(event: E)가 발생(occur)하도록 만든(cause)다면, 이는 E가 발생(occur)하는 것을 함의한다는 설명을 통해 의미성분 CAUSE에 대한 도식(schema)을 완성한다. 이 CAUSE 의미성분은 다양한 문장들의 의미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많은 함의관계를 만들어 낸다.

17) a. George killed the dragon. (Saeed, 2003, p. 266)
b. The dragon died.
c. [x cause E to occur] entails [E occur].

Jackendoff의 의미성분 CAUSE는 OE 심리 동사의 의미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즉 (18a)의 개가 소년을 무섭도록 한 사건은 개가 소년이 무섭게 되도록 만든 (CAUSE) 사역구문(18b)와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역의 구문으로 OE 심리 동사를 설명하는 것은 Croft(1993)에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18) a. The dog frightened the boy.
b. The dog caused the boy frightened (at the dog).

이러한 Jackendoff의 개념구조를 OE 심리 동사에 적용하면 심리 동사의 의미구조에 대한 보다 통찰력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19C)의 개념구조를 보면, 문장의 유형은 사역 사건(CAUSE Event)이며, 이는 두 가지 의미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개이며, 다른 하나는 소년의 감정 상태인 상태(State)이다. 이 상태 의미범주(State)는 세 가지 의미 범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소년(BOY)이며, 다른 둘은 장소 속성 FRIGHTEN과 장소 Thing DOG이다. 소년이 개를 무서워한다는 감정상태를 소년이 장소 속성 FRIGHTEN과 DOG에 동시에 머물러 있다고 단순하게 표시한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 a. The dog frightened the boy.
b. [S [NP The dog] [VP [V frightened] [NP the boy]]]
c. [Event CAUSE ([Thing DOG], [State BE ([Thing BOY], [Place AT ([Property FRIGHTEN]), [Place AT ([Thing DOG]))])]

(19c)의 개념구조를 통한 의미성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세 가지이다. 우선 frighten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장소라는 물리적인 속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져 감정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두 번째는 OE 심리 동사의 내부 구조에서 [CAUSE]라는 사역의 의미성분을 찾아내서, 이 구문을 사역 구문으로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은 이러한 사역 구문 분석을 통해 OE 심리 동사 구문의 가장 내부적인 의미성분이 경험자와 감정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즉 원인(causer)은 외부적인 논항이며, 내부적으로는 경험자와 감정이 일차적 의미성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2.5 심리동사 주어실현 원칙

OE 심리 동사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 바로 심리동사의 논항들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주로 심리동사의 주어실현 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리동사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실행한 연구에서, 이익환과 이민행(2005)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심리동사의 주어실현 원칙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p. 63). 우선, 문장의 논항 중에서 통제권한이 가장 높은 논항이 주어로 실현된다. 다음, 현저성이 높은 의미역이 주어로 선정된다. 마지막으로, 사역구문에서는 사역자가 다른 의미역보다 우선적으로 주어로 실현된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Wechsler(1995)는 심리 동사의 주어의 통제성과 관련하여, 개념규칙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그는 like 동사의 논항의 예를 통해 주어는 목적어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이며, 나아가 개념을 갖는 논항이 주어가 된다고 주장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 a. John likes Mary. = John has a notion of Mary.

(Wechsler, 1995, p. 36)

b. like 개념 구조

$\forall x,y\ \Box[like(LIKER{:}x,\ LIKEE{:}y) \rightarrow CONCEIVE(x,\ y)]$

c. like 개념 규칙

REL like

ROLES <[LIKER], [LIKEE]>

(20a)에서 John이 Mary를 좋아한다는 것은 John이 Mary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b)는 x가 y에 대하여 개념을 가지면, x가 주어가 되며, y가 목적어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20c)의 like는 관계(relation)로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해지는 사람의 역할(roles)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념구조를 Wechsler(1995, pp. 41-46)는 심리동사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21) a. John feared the movie.
b. The movie frightened John.

(21a)의 구문에서 John은 문장의 주어로서, 두려움의 대상인 movie에 대해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1b)에서 목적어인 John은 두려움을 유발한 movie에 대해 반드시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John이 movie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은 상황이므로, John이 주어가 되지 않은 것이며, frighten의 목적어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명사구가 다른 하나의 명사구에 대해 개념을 갖는다는 것이 그 명사구를 통제하는 것이며, 통제하는 논항이 문장의 주어가 된다는 설명이다.

주어 원칙의 또 다른 설명은 현저성이 높은 의미역이 주어가 된다는 주장이다. 대개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의미역의 현저성 등급(Dowty, 1991)은 아래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2) 의미역의 현저성 등급 (Dowty, 1991, p. 578)
행위자(Agent) > 경험자(Experiencer) > 목적(Goal), 출처(Source), 위치 (Location) > 대상 (Theme)

23) a. The child fears the mask. (Experiencer > Theme)
b. The man frightened the child. (Agent > Experiencer)
c. The mask frightened the child.(Theme < Experiencer)

(23a)의 경우 the child는 경험자(Experiencer)로서, 대상(Theme)보다 현저성이 높으므로 주어로서 잘 실현이 되었다. (23b)의 경우는 OE 심리 동사인데, the man이 행위자(Agent)로서 경험자 the child보다 현저성이 높으므로, 주어로 잘 실현되었다. 그러나 (23c)의 경우에서 대상인 the mask는 경험자보다 현저성이 낮은데도 주어로 실현된 것은 현저성 등급으로 설명할 수 없다. Grimshaw(1990, p. 24)는 이 경우에 대해 사역구문에서는 현저성의 등급이 재조정된다고 주장한다.

24) 사역구문의 현저성 등급
사역자 (Cause) > 기타 의미역

따라서 OE 심리 동사 문장은 사역구문의 일종으로 보아야 의미역의 현저성 등급에 의한 주어의 설정이 타당하게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정리해보면, OE 심리 동사 문장은 개념을 가지는 논항이 주어가 된다는 설명을 적용하자면, 경험자 논항이 개념을 가지지 못하므로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타당하다. 의미역 현저성 등급에서 현저성이 가장 높은 논항이 주어가 된다는 설명과 OE 심리 동사 구문이 사역구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사역자 의미역이 우선순위로 주어가 됨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주어 실현 원칙을 통해 살펴본 OE 심리동사는 사역구문으로서 이해를 했을 때, 주어를 의미역의 현저성 등급에 의해 사역자(cause)로서 설명할 수가 있다. 결국 통사론의 접사 make 도입을 통한 동사구 분할구조, 의미론의 CAUSE 도입, 심리동사 주어 실현 원칙을 통한 사역구조로서의 OE 심리동사 구문이라는 세 가지 전통적인 이론적 접근은 모두 이론적으로 OE 심리동사가 사역구문이며, 주어인 자극은 외부 논항이며, 이 외부 논항이 내부 구조인 '경험자 술어(*-ed*)'를 발생시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이며, 중심 논항은 경험자 논항, 부가적 논항은 외부논항인 자극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6 머릿속 사전과 심리실험

본 논문에서 OE 심리 동사의 원형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 코퍼스와 심리 실험은 모두 머릿속 사전(Lexicon)의 구성과 관련성이 있다. 코퍼스는 특정 언어 표현의 빈도를 보여주며, 심리 실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 되는 언어표현들에 대해 언어 사용자들의 직관을 보여 준다. 이처럼 코퍼스와 심리실험을 모두 경험적 데이터로 사용하여 언어 현상을 밝히는 연구는 최근의 OE 심리동사의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Grafmiller, 2013). 본 논문의 심리 실험은 복수의 언어 표현들에 대한 언어사용자들의 두드러짐(saliency)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소절에서는 이러한 빈도와 두드러짐을 머릿속 사전과 관련하여 언어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조명한과 그의 동료들(2004)에 따르면, 어휘접속과 관련하여 명명과제(naming task)와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어휘항목들은 가용성, 즉 언어처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가용성은 출현빈도 또는 사용빈도와 관련된다(p. 145).”는 것이다. 이는 Foster(1979)의 견해와 일치하는데, 그는 어휘항목이 사용빈도 순으로 탐색된다고 주장하며, 데이터를 통해 고빈도 항목으로 판단되는 어휘가 머릿속사전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여, 어휘 탐색이 고빈도 항목부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조명한 외, 2004, p. 145).

특정 언어 표현이 코퍼스에서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의미를 구성하는 다양한 표현과 단어들의 집합체인 의미장의 목록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미장이란 의미 단위 별로 묶은 단어들의 집합체이며, 한 단어는 여러 의미장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

의미 점화 효과(priming effect) 실험을 통해 밝혀진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뇌의 머릿속 사전이 알파벳 순서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의미장별로 어휘목록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촉발효과 실험이란 어휘결정과제의 대상이 되는 단어 앞에 다른 단어를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반응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여 앞 단어와 영향 받는 단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실험이다. 관련된 단어를 먼저 보여주고, 다음 단어가 실제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어휘 결정과제이지만, 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험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미리 앞에서 제시되면 실험 단어의 결정시간이 빨라지는 촉발효과가 나타난다. 강범모(2011, p. 288)에 따르면 실험 참여자에게 'nurse'를 보여주고, ‘doctor'를 실험과제로 주면, 같은 경우에 ’uncle'을 보여주는 경우보다 반응시간이 빠르다. 이는 nurse와 doctor가 같은 의미장을 형성하여 머릿속 사전에 가까이 위치함을 나타내며, nurse와 uncle이 다른 의미장에 위치하여, 검색에 있어 상호적으로 촉발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촉발 효과를 통해 우리의 머릿속 사전이 의미와 의미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코퍼스가 OE 심리동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빈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심리 실험은 머릿속사전에서 우선적으로 검색되는 의미를 사용하여 피험자가 문장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므로,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 사전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원형의미를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2.7 한국인 영어 학습자 OE 심리동사 습득 연구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OE 심리동사 습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L1이 L2를 간섭한다고 보았으며, 영어 심리동사 습득의 어려움이 한국어와 영어의 심리동사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손현덕과 김희숙(2011)은 한국어와 영어의 심리동사의 차이를 비교하고,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 심리동사를 습득할 때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두 언어간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118명의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어휘지식 산출과 논항구조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피험자들은 OE 심리 동사의 습득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어 OE 심리동사의 ‘사동성’ [+CAUSE]는 별개의 어휘를 통해서 실현된다. ‘두려움’이라는 동일한 의미소를 가지고 있는 fear와 frighten에 대해 fear는 [-CAUSE]이며 frighten은 [+CAUSE]이므로, 두 단어는 별개의 어휘이다. 대조적으로 한국어는 ‘사동성’이 보조동사인 ‘-게 하다’라는 ‘형태소’를 통해 어휘에 첨가되어, 동일어휘가 [+CAUSE], [-CAUSE]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무섭다’에 ‘사동성’을 주기 위해, ‘-게 하다’를 붙여 ‘무섭게 하다’를 만든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두 언어 간에는 사동성 [+CAUSE]를 습득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러한 다른 방식의 ‘사동성’ 부여는 경험자논항과 자극 논항들을 OE 심리동사의 문장 속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숙영과 김수연(2016)은 OE 심리동사 습득을 '이해'와 '산출'의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50명의 대학생들에게 OE 심리동사(annoy, bore, confuse, 등)와 주어 경험자(Subject Experiencer, 이하 SE) 심리동사(admire, blame, enjoy, 등)를 제시한 후, 문법성 판단 과업과 작문 과업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이해와 산출이 습득에 있어서 다른 요소라고 주장했다. 한국 학생들은 예상과 달리 OE 심리동사를 SE 심리동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산출의 측면에서는 OE 심리동사의 작문과업에서 보다 많은 오류를 만들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이 'be interested in'과 같은 숙어를 많이 학습하고 있어서, OE 심리 동사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높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이해도와는 다르게, 실제 작문과업에서는 OE 심리동사에서 논항의 배치에 대해 실수가 많았다. 학습자들은 경험자 논항을 OE 심리동사의 주어자리에 배치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모국어로부터의 전이라고 판단했다.

Kim(2012)은 325명의 한국인 학습자와 20명의 영어 원어민 학습자 연구를 통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OE 심리동사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어의 유생성(animacy) 선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작문 실험을 실시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원어민 참여자들에 비해 1.8배 유생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생주어를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더 낮은 OE 심리동사 습득 비율을 보였다. 더 나아가, 영어 능숙도가 높은 참여자들 역시 유생 주어에 대한 선호도가 원어민 참여자보다 상당히 높아, OE 심리동사의 주어 선택에 있어서 여전히 한국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장되어졌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연구방법

3.1 OE 심리동사 분석

본 연구는 OE 심리동사의 원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구체적으로는 '자극 논항 *-ing*'와 '경험자 논항 *-ed*'라는 두 가지 구조로 분리하여 경험적 데이터(Empirical Data)에서 그 빈도를 찾았다. 본 소절의 목적은 이러한 방법론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25a)의 타동사 구조로서의 frighten은 the movie과 the child라는 두 개의 논항을 모두 취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는 (25b)와 (25c)처럼 '자극 논항 *-ing*'와 '경험자 논항 *-ed*'로 각각 분리되어 형용사 술어 구조로도 나타난다. 이처럼 타동사 구조속의 두 개의 논항이 각각 분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OE 심리동사의 원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Postal(1971)과 Croft(1993)는 (24c)의 '경험자 논항 *-ed*'구조가 원형이며, (24b)의 '자극 논항 *-ing*'구조가 2차적 구조라고 여겼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OE 심리동사의 원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하여, OE 심리동사의 논항을 (26a)와 (26b)로 분리하여, 영어 원어민 코퍼스 분석과 심리 실험을 통해 OE 심리동사의 원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5) a. The movie frightened the child.
b. The movie was frightening.
c. The child was frightened.

26) a. 자극 is -ing.
b. 경험자 is -ed.

또한 제2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도 OE 심리동사 문장을 구성할 때, (26a,b)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보다 원형에 가까운 한 논항과 술어를 사용하여 해당 심리동사를 표현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작문을 모은 학습자 코퍼스를 분석하여, 한국인 학습자의 OE 심리동사 사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어 원어민 코퍼스의 분석 결과와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의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문헌과 학습 자료를 통해 가장 빈도가 높은 OE 심리동사 12개를 선택하였다.

27) 연구 대상 OE 심리동사
surprise, amuse, excite, embarrass,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tire, exhaust, satisfy, please

영어 원어민 코퍼스와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연구 방법으로 심리 실험을 적용하여, OE 심리동사의 원형의미를 언어 사용자가 어떻게 개념화하는지를 언어사용자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제인 OE 심리동사의 원형의미가 코퍼스와 인지 실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비교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다음 구체적인 연구 질문에 답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8) 연구 질문
a. 원어민 영어 코퍼스는 '경험자 논항 -ed'를 원형의미로 개념화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경험자 논항 -ed'에서 '자극 논항 -ing'구조 보다 높은 빈도를 보여주는가?
b.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는 한국인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으로 경험자 논항을 주어로 많이 사용하므로, '경험자 논항 -ed'에서 보다 높은 빈도를 보여주는가?
c.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는 OE 심리동사에서 영어 원어민 코퍼스와 같은 분포 형태를 보이는가?
d. 영어 원어민 심리 실험은 코퍼스의 데이터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가?
e. 한국인 영어 학습자 심리 실험은 코퍼스의 데이터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가?

3.2 코퍼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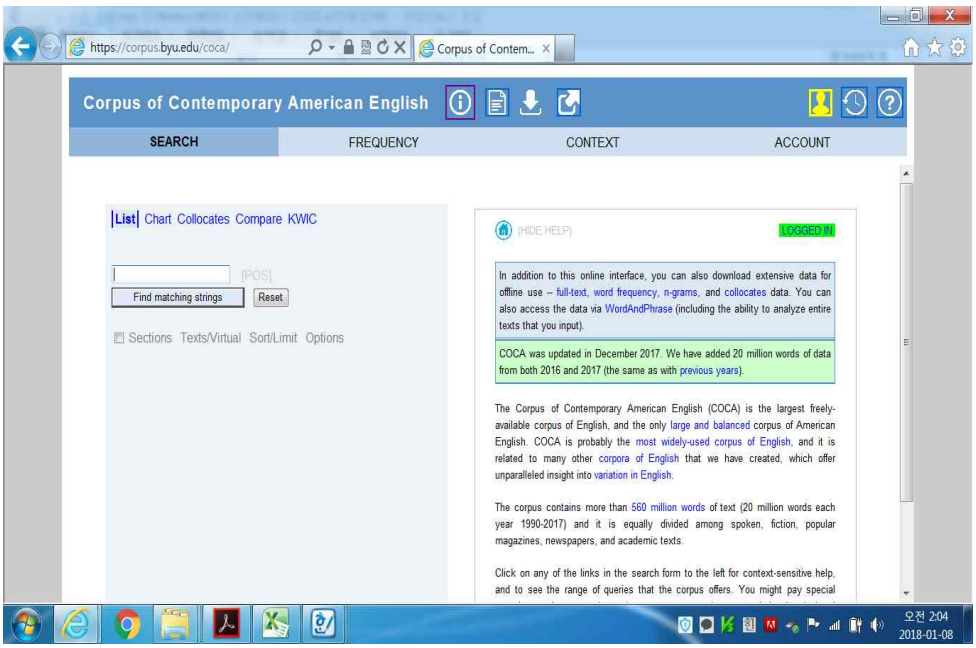
OE 심리동사 12개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영어 원어민 코퍼스는 Corpus of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이다. 연구자를 위해 활용이 허용된 코퍼스이며, 홈페이지인 http://corpus.byu.edu/coca/ 에서 분석작업이 가능하다. COCA는 5억 6천만 단어로 이루어진 대형 코퍼스이며, 매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코퍼스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그림 5> COCA 프로그램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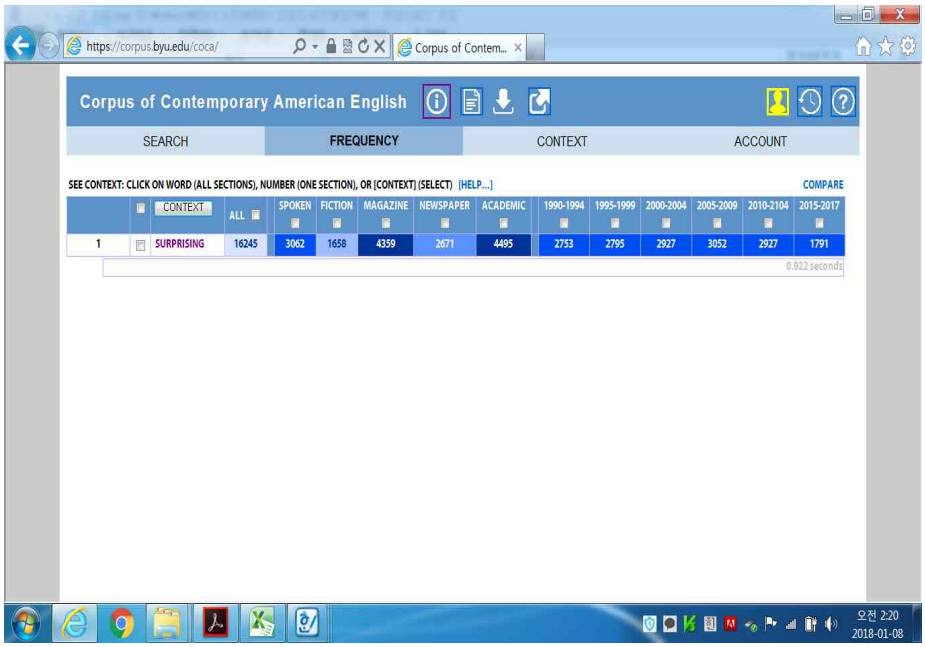
네모로 되어 있는 검색란에 검색어를 넣고, 아래 체크 표시를 하면, 레지스터(register)별로 빈도수를 보여준다. 최근 본 홈페이지는 연구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POS Tagging이다. 원하는 검색어의 품사를 지정하는 기능인데, 이는 본 연구인 OE 심리동사의 원형 코퍼스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surprising을 검색어로 넣을 경우, 코퍼스 검색 결과는 형용사 사용인 surprising과 뒤에 목적어가 들어오는 타동사 be surprising을 모두 포함한 빈도 수를 보여주게 된다. 이는 다시 본 연구를 위해 타동사 사용인 be surprising을 제외해야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과거에 POS(Parts Of Speech) Tagging 기능이 없었던 경우는 별도의 Tagging 사전을 만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재 본 사이트에서는 surprising을 넣고, [POS]를 누르고, adj.ALL을 선택하면, surprising이 오직 형용사로 사용된 빈도만 보여준다. 이를 적용하여 검색하면 아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6>과 같다.

<그림 6> Surprising에 대한 코퍼스 'POS Tagging' 적용 후 화면



surprised의 빈도수를 얻는 경우에도, 검색어에 surprised를 입력하면,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형용사 surprised의 빈도뿐만 아니라, 뒤에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 과거형 surprised의 사용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첫 화면에서 제공되는 POS Tagging기능을 활용하면, 오직 형용사 surprised의 빈도수만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형용사 surprised의 빈도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그림 7).

<그림 7> Surprised에 대한 코퍼스 'POS Tagging' 적용 후 화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단계에서 surprising 또는 surprised를 누르면, 콘코던스(concordance)가 해당 단어가 사용된 문맥(context)을 <그림 8>에서처럼 보여 주어, surprising과 surprised 전후의 단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12개 OE 심리 동사에 대한 연관어휘(collocates)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 surprising의 콘코던스 화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OE 심리 동사 사용을 원어민 화자의 사용과 비교하기 위해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Learner corpus)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학습자 코퍼스는 가천 코퍼스(최지웅, 2013)라고 불리는 코퍼스로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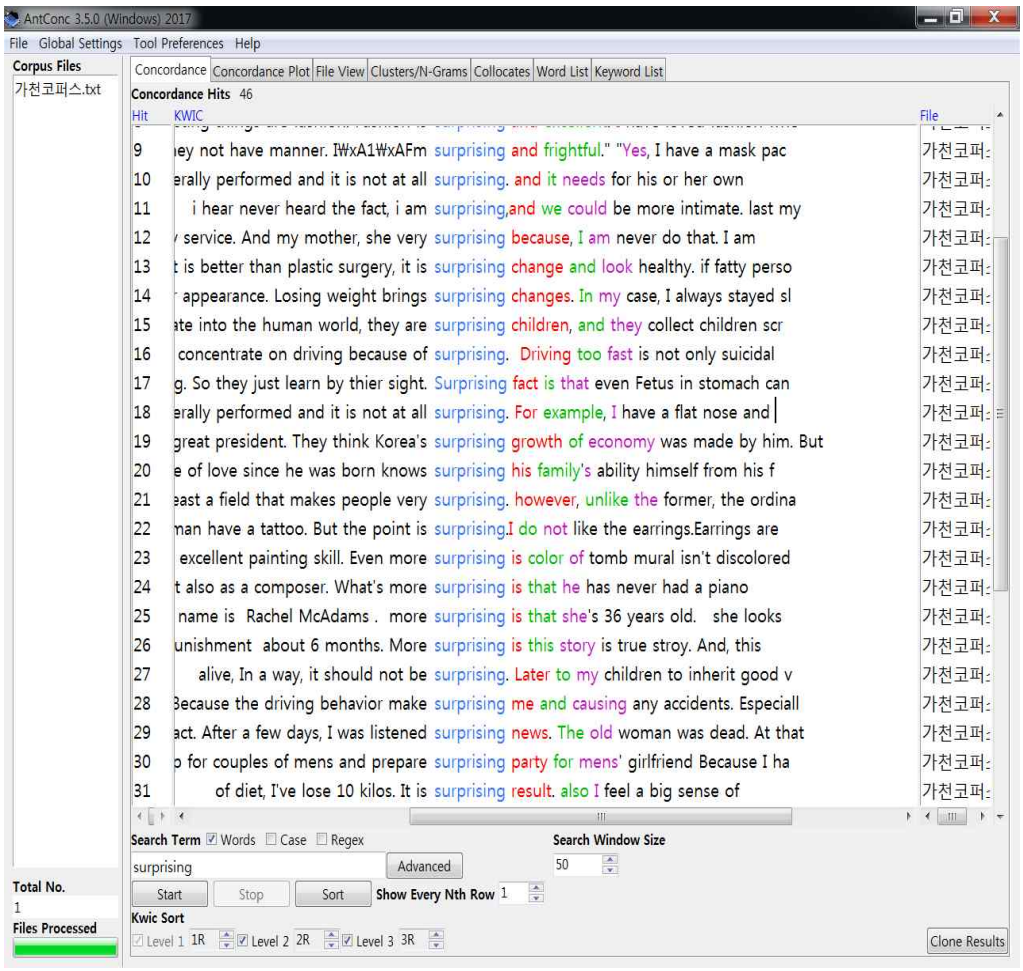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는 코퍼스이다. 가천 코퍼스의 단어 수는 1,606,511(word types: 26345, word tokens: 1606511)이고,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험자들이 남긴 영어 에세이(essay) 16,111개를 모은 것이며, 2013년에 최종적으로 파일이 완성되었다. 수험자들의 토익 평균은 548점이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가천 corpus의 빈도수와 콘코던스 분석을 위해 코퍼스 분석 소프트웨어인 AntConc를 사용하였다. AntConc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아래 그림은 AntConc를 사용하여, 가천 코퍼스에서 surprising을 검색어로 지정했을 때, 콘코던스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9> AntConc의 콘코던스 화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Conc에서는 POS 기능이 없으며, 연구자가 콘코던스를 보면서, 직접 타동사로 쓰인 용례를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surprising은 전체 46개를 얻었으며, 이중 타동사 즉 be surprising 뒤에 목적어가 쓰인 경우는 1개였다. 따라서 형용사로만 쓰인 경우는 45개였다. 마찬가지로 surprised는 전체 338개를 얻었으며, 타동사 사용은 12개이고, 형용사로 쓰인 경우는 326개였다. 아래 (29a,b)는 surprising과 surprised가 타동사로 사용된 것으로 learner corpus에서 제외된 예시이다.

29) a. They are surprising children.
b. New fashion surprised a lot of people.

정리해보면, 논문의 방법론에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위해, OE 심리동사의 형태는 오직 형용사형인 *-ing, -ed*만을 보았다. 주어 서술어로서 'S *is -ing*', 'S *is -ed*'와 명사 수식어(전치, 후치수식어)로서 '*-ing* 명사', '*-ed* 명사', '명사 *-ing*', '명사 *-ed*', 그리고 'S V 명사 *-ing/-ed*'구조 등이 본 논문에서 인정한 형용사 형이며, 영어 원어민 코퍼스인 COCA의 POS Tagging에서 형용사로 지정을 하면 위에서 언급한 형용사형의 수와 콘코던스만이 보여진다. 타동사 구조인 'S *is -ing* 목적어'와 'S V*ed* 목적어' 구조는 '*-ing*'와 '*-ed*' 형태이지만,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다. 'S *is -ed*'형태는 타동사의 수동태구조이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ed*'이므로 당연히 포함되었다.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의 콘코던스 소프트웨어는 POS Tagging 기능이 없으므로, 수동으로 연구자가 직접 콘코던스를 보며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3.3 심리실험

본 연구의 심리 실험에서는 실험자의 인지체계속의 OE 심리 동사에 대한 현저성(saliency)을 파악하기 위해 문장 생성 실험(sentence production experiment)을 실시하였다. 문장 생성 실험은 코퍼스의 빈도 분석과 함께 중심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문헌들(Connine et al, 1984; Gamsey et al., 1997) 에서 사용되었으며, OE 심리동사인 worry에 대해 연구한 또 다른 논문인 Roland 와 Jurafsky(1997)에서도 주요한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OE 심리동사의 중심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문장 생성 실험을 도입하여, 피험자에게 단어를 제시하고, 문장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방식(Roland & Jurafsky, 1997, p. 3)으로 사용 되어졌다. 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본 연구자의 논문(Kang, 2018)의 코퍼스 데이터와 심리실험의 결과를 비교하여, OE 심리동사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시도이다. 영어 원어민 실험을 위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30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고, 12개 OE 심리 동사별로 문장을 생성하게 하였다.

30) You are asked to change the form of the presented word into the one with either the present participle -ing or past participle -ed ending. Then write down the very first sentence you can think of containing the word.

surprise

이는 해당 OE 심리 동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험자가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을 만들도록 하여, 현저성이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ing*와 *-ed* 구조가 수반하는 OE 심리 동사 구조의 원형의미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와 원어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의 한 대학의 교양강좌를 받는 학생 35명에게 같은 문장생성 실험을 했다. 영어 원어민에게 사용한 질문을 우리말로 바꾸어 영어 OE 심리 동사의 현저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31) 제시된 단어를 분사형인 현재분사 -ing나 과거분사 -ed중 하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해당 분사를 포함한 맨 먼저 떠오르는 영어 문장 하나를 써주세요.

surprise

피험자들이 만들어 낸 문장을 동사별로 분리하여, 사용빈도를 파악하고, 통계적 절차를 통해 의미 있는 분류가 가능한지 파악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이 생성한 문장은 코퍼스 분류와 마찬가지로 타동사 사용을 나타내는 경우는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연구 결과

4.1 코퍼스 분석

4.1.1 영어 원어민 코퍼스

COCA를 분석하여, 영어 원어민들은 OE 심리동사의 원형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 12개의 고빈도 심리동사마다 '*-ing*'와 '*-ed*' 빈도를 COCA의 웹페이지에서 구했다. 각 동사들은 '*-ing*' 또는 '*-ed*' 중, 어느 하나의 형태에서 보다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ing*'우세 동사 또는 '*-ed*'우세 동사로 분류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각 동사의 '*-ing*' 형태의 빈도 수와 '*-ed*' 형태의 빈도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거나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으므로 차이가 없다는 방식으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상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데 적합한 방식은 SPSS의 교차분석인 카이 제곱 검정이다. 아래 표는 surprise에 대해 통계 입력방식을 보여준다.

<표 1> surprise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

N = 506,000,000	Occurrence	Other Words
surprising	16245	505,983,755
surprised	26489	505,973,511

2*2 표 형태의 입력을 사용하는데, 이때 필요한 빈도수는 4가지이며, 해당 동사의 *-ing* 빈도, 해당 동사의 *-ed* 빈도, 전체 N수에서 *-ing*와 *-ed*를 제외한 각각의 빈도가 입력되었다. 이와 유사한 통계 방식이 Gries와 Stefanowitsch(2014)에서 코퍼스를 통한 교체현상(alternation)연구를 위해 사용되어졌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코퍼스에서 영어 원어민의 각 OE 심리동사별 *-ing*와 *-ed* 빈도

No.	OE 심리동사 (N=506,000,000)	코퍼스 빈도와 동사별 백분율(%)			X^2	sig.
1	surprise	surprising **surprised**	16245 **26489**	(38%) **(62%)**	2455.739	.000*
2	amuse	amusing amused	2385 2422	(49.6%) (50.4%)	.285	.594
3	excite	**exciting** excited	**15196** 13528	**(52.9%)** (47.1%)	96.863	.000*
4	embarrass	embarrassing **embarrassed**	5632 **7572**	(42.7%) **(57.3%)**	285.038	.000*
5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56314** 39743	**(58.6%)** (41.4%)	2858.944	.000*
6	frighten	**frightening** frightened	**5350** 5026	**(51.6%)** (48.4%)	10.117	.001*
7	shock	**shocking** shocked	**5953** 5513	**(51.9%)** (48.1%)	16.885	.000*
8	bore	**boring** bored	**7059** 5295	**(57.1%)** (42.9%)	251.880	.000*
9	exhaust	exhausting **exhausted**	1004 **3031**	(24.9%) **(75.1%)**	1018.276	.000*
10	tire	tiring **tired**	761 **25284**	(2.9%) **(97.1%)**	23090.479	.000*
11	satisfy	satisfying **satisfied**	4670 **6110**	(43.3%) **(56.7%)**	192.358	.000*
12	please	pleasing **pleased**	2221 **11297**	(16.4%) **(83.6%)**	6093.710	.000*

* < .05

<표 2>의 결과를 통해, 각 동사 별로 *-ing*와 *-ed*중 어느 것이 빈도가 높고, 이러한 빈도 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amuse를 제외하고 모든 11개 동사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ing*와 *-ed*중 어느 하나의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러한 *-ing*, 혹은 *-ed* 우세 분류를 아래의 표에 다시 정리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코퍼스에서 영어 원어민의 각 OE 심리동사별 *-ing, -ed* 우세 분류

우세	OE 심리동사
자극 -ing 우세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경험자 -ed 우세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
−ing = −ed	amuse

<표 3>을 통해, 2장의 이론적인 틀과 실제 코퍼스 빈도분석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장의 이론적인 틀에서는 모든 OE 심리동사의 원형의미는 '경험자 논항 *-ed*' 형태이며, '자극 논항 *-ing*'형태는 2차적 의미라고 보았었다. 그러나 코퍼스 연구를 통해 '자극 논항 *-ing*'가 원형의미인 OE 심리동사는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등이며, '경험자 논항 *-ed*'가 원형의미인 OE 심리동사는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 등이며, amuse는 두 개의 형태의 빈도가 비슷하였다.

4.1.2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

다음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코퍼스 분석을 위해 학습자 코퍼스인 가천 코퍼스에서 각 동사 별로 *-ing*와 *-ed*의 빈도수를 AntConc를 통해 구하고, 전체 가천 코퍼스 단어 수(1,606,511개)와 비교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두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 판단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 코퍼스에서 한국인 학습자의 각 OE 심리 동사별 *-ing, -ed* 빈도

No.	OE 심리동사 (N=1,606,511)	코퍼스 빈도와 동사별 백분율(%)			X^2	sig.
1	surprise	surprising **surprised**	45 **326**	(12.1%) **(87.9%)**	212.857	.000*
2	amuse	amusing amused	5 2	(71.4%) (28.6%)	1.286	.453
3	excite	**exciting** excited	**361** 163	**(57.9%)** (42.1%)	15.400	.000*
4	embarrass	embarrassing **embarrassed**	34 **296**	(10.3%) **(89.7%)**	208.033	.000*
5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1277** 941	**(57.6%)** (42.4%)	50.935	.000*
6	frighten	**frightening** frightened	**945** 461	**(67.2%)** (32.8%)	166.685	.000*
7	shock	shocking **shocked**	61 **207**	(22.8%) **(77.2%)**	79.544	.000*
8	bore	**boring** bored	**258** 106	**(70.9%)** (29.1%)	63.480	.000*
9	exhaust	exhausting **exhausted**	4 **53**	(7 %) **(93%)**	42.124	.000*
10	tire	tiring **tired**	6 **557**	(1.1%) **(98.9%)**	539.350	.000*
11	satisfy	satisfying **satisfied**	16 **319**	(4.8%) **(95.2%)**	274.085	.000*
12	please	pleasing **pleased**	6 **37**	(14%) **(86%)**	22.349	.000*

* < .05

<표 4>의 결과를 통해, amuse를 제외하고 11개의 OE 심리 동사가 *-ing*와 *-ed*빈도에 대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다시 아래 <표 5>를 통해 *-ing, -ed* 우세를 재구성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코퍼스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각 OE 심리동사별 *-ing, -ed* 우세 분류

우세	심리동사
자극 –ing 우세	excite, interest, frighten, bore
경험자 –ed 우세	surprise, embarrass, shock, exhaust, tire, satisfy, please
-ing = -ed	amuse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자극 논항 *-ing*'우세 동사는 excite, interest, frighten, bore이며, '경험자 논항 *-ed*'우세 동사는 surprise, embarrass, shock, exhaust, tire, satisfy, please이고, amuse는 *-ing*와 *-ed*에 대해 우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코퍼스 분석 결과를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학습자의 *-ing*, *-ed* 우세 형태로 다시 정리하여 비교 하였다.

<표 6> 코퍼스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 비교

영어 원어민		한국인 영어 학습자	
–ing 우세	–ed 우세	–ing 우세	–ed 우세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	excite, interest, frighten, bore	surprise, embarrass, shock, exhaust, tire, satisfy, please
amuse		amuse	

비교 결과 한국인 학습자의 OE 심리동사에 대한 사용은 영어 원어민의 OE 심리동사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shock만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학습자가 대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다른 11개의 OE 심리동사의 사용은 일치하였다.

4.2 심리실험 분석

4.2.1 영어 원어민 심리실험 결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실험자의 인지체계속의 OE 심리동사에 대한 현저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aliency)을 파악하기 위해 문장 생성 실험(sentence production experiment)을 실시했다. 참여자는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의자 30명으로, 모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 국적은 미국 16명, 캐나다 9명, 호주 2명, 영국 2명, 남아프리카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4.4세였다. 이들에게 질문지 방식으로 12개의 OE 심리동사를 각각 제시하고, *-ing* 또는 *-ed*를 사용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을 생성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ing*와 *-ed* 각각의 범주에 정리하고,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 한지 측정하였다. 일부 참가자가 실험의 관심사와 다르게, 타동사 문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아래 표에서 invalid로 표시하고, 교차분석의 수치에서 그 경우를 제거하고 값을 구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영어 원어민의 심리 실험에서 *-ing*와 *-ed* 빈도

No.	OE 심리동사	코퍼스 빈도와 동사별 백분율(%)			X^2	sig.
1	surprise (N=29)	surprising	11	37.9%	3.379	.114
		surprised	18	62.1%		
		Invalid	1			
2	amuse (N=29)	amusing	18	62.1%	3.379	.114
		amused	11	37.9%		
		Invalid	1			
3	excite (N=30)	exciting	17	56.7%	1.067	.439
		excited	13	43.3%		
		Invalid	0			
4	embarrass (N=30)	embarrassing	8	26.7%	13.067	.001*
		embarrassed	22	73.3%		
		Invalid	0			
5	interest (N=30)	**interesting**	21	70%	9.600	.004
		interested	9	30%		
		Invalid	0			
6	frighten (N=27)	frightening	10	37%	3.630	.102
		frightened	17	63%		
		Invalid	3			
7	shock (N=28)	shocking	15	53.6%	.286	.790
		shocked	13	46.4%		
		Invalid	2			
8	bore (N=28)	**boring**	21	75%	14.000	.000*
		bored	7	25%		
		Invalid	2			
9	exhaust (N=29)	exhausting	13	44.8%	.621	.600
		exhausted	16	55.2%		
		Invalid	1			
10	tire (N=30)	tiring	9	30%	9.600	.004*
		tired	21	70%		
		Invalid	0			
11	satisfy (N=28)	satisfying	15	53.6%	.286	.790
		satisfied	13	46.4%		
		Invalid	2			
12	please (N=30)	pleasing	5	16.7%	26.667	.000*
		pleased	25	83.3%		
		Invalid	0			

* < .05

영어 원어민 심리 실험에서, 유의 수준 .05에서 *-ing, -ed* 우세가 유의미하게 다른 OE 심리 동사는 interest, bore, embarrass, tire, please이다. 그러나 논의를 명확하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기위해, 유의확률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백분율 상으로 *-ing*와 *-ed*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50%이상을 나타내는 OE 심리 동사를 포함하여, 아래 표에 다시 정리하였다.

<표 8> 심리 실험에서 영어 원어민의 심리동사별 *-ing, -ed* 우세 분류

우세	OE 심리동사
자극 -ing 우세 백분율 50% 이상	interest, bore excite, shock, satisfy
경험자 -ed 우세 백분율 50% 이상	embarrass, tire, please surprise, amuse, frighten, exhaust

이러한 분류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ing* 우세 동사는 interest, bore 이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백분율에서 *-ing*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동사는 excite, shock, satisfy였다. 유의미하게 *-ed* 우세를 보이는 동사는 embarrass, tire, please이며, 유의미하지 않지만 *-ed*에서 백분율 50%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동사는 surprise, amuse, frighten, exhaust였다. 이는 코퍼스 분석에서 파악한 *-ing, -ed* 동사의 분류와 satisfy를 제외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정리하면, 영어 원어민의 심리 실험의 결과와 코퍼스의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4.2.2 한국인 영어 학습자 심리실험 결과

한국의 한 대학교 교양 수업 참가자 35명을 대상으로, 현저성을 파악하는 심리 실험을 시행했다. 전공은 인문, 사회, 자연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학년은 평균 2.05학년, 연령은 21.6세였으며, 토익 성적을 보고한 9명의 학생의 토익 평균은 669점이었다. 설문지 방식이며, 12개의 영어 OE 심리동사를 *-ing, -ed* 형태 중 먼저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생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일부 참가자는 본 실험의 취지와 다른 답을 하였으며, 아래 표에서 invalid로 표시하고, 실험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9>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심리 실험에서 *-ing*와 *-ed* 빈도

No.	OE 심리동사	코퍼스 빈도와 동사별 백분율(%)			X^2	sig.
1	surprise (N=32)	surprising	7	21.9%	20.250	.000*
		surprised	25	78.1%		
		Invalid	3			
2	amuse (N=25)	amusing	13	52.0%	.080	1.000
		amused	12	48.0%		
		Invalid	10			
3	excite (N=33)	**exciting**	22	66.7%	7.333	.013*
		excited	11	33.3%		
		Invalid	2			
4	embarrass (N=33)	embarrassing	8	24.2%	17.515	.000*
		embarrassed	25	75.8%		
		Invalid	2			
5	interest (N=34)	**interesting**	22	64.7%	5.882	.028*
		interested	12	35.3%		
		Invalid	1			
6	frighten (N=30)	frightening	11	36.7%	4.267	.070
		frightened	19	63.3%		
		Invalid	5			
7	shock (N=34)	shocking	15	44.1%	.941	.467
		shocked	19	55.9%		
		Invalid	1			
8	bore (N=34)	**boring**	24	70.6%	11.529	.001*
		bored	10	29.4%		
		Invalid	1			
9	exhaust (N=29)	exhausting	5	17.2%	24.897	.000*
		exhausted	24	82.8%		
		Invalid	6			
10	tire (N=35)	tiring	0	0%	70.000	.000*
		tired	35	100%		
		Invalid	0			
11	satisfy (N=31)	satisfying	12	38.7%	3.161	.127
		satisfied	19	61.3%		
		Invalid	4			
12	please (N=24)	pleasing	3	12.5%	27.000	.000
		pleased	21	87.5%		
		Invalid	11			

* < .0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논의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유의 수준 .05에서 *-ing, -ed* 우세가 유의미한 OE 심리동사와 유의확률이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백분율에서 *-ing, -ed*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50%이상을 나타내는 동사를 아래 표에 함께 정리하였다.

<표 10> 심리실험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심리동사별 *-ing, -ed* 우세 분류

우세	심리동사
자극 -ing 우세 백분율 50% 이상	excite, interest, bore amuse
경험자 -ed 우세 백분율 50% 이상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please frighten, shock, satisfy

위의 표에서 유의도 .05에서 유의미하게 *-ing* 우세인 동사는 excite, interest, bore이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ing*에서 백분율 50%이상을 차지한 동사는 amuse였다. 유의미하게 *-ed* 우세를 보인 동사는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please이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ed*에서 백분율로 50%이상이 발생한 동사는 frighten, shock, satisfy였다. 본 심리 실험의 결과는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의 결과와 frighten을 제외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데이터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대상과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논의

5.1 영어 원어민 코퍼스 논의 : 기본 감정과 2차 감정의 분화

본 장에서는 영어 원어민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어의 OE 심리동사와 이를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감정을 연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영어 OE 심리동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관점을 다시 살펴보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를 할 것이다. 다음은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인간의 기본 감정 분류, 감정의 인지 과정, 그리고 본연구의 결과와 감정과 연관성에 대한 제안 등을 살펴볼 것이다.

2장 문헌연구에서 분석한 통사론과 의미론은 모두 '경험자 *-ed*' 구조가 OE 심리동사의 원형의미라고 분석하였다. 논의를 위해 아래 (32)에서 다시 간략하게 제시하고, <표 11>로 기존 논의를 정리하였다.

32) a. The dog frightened the boy. (OE 심리동사 예시)

b. The dog made the boy frightened (at the dog). (통사적 접근)

c. [Event CAUSE ([Thing DOG], [State BE ([Thing BOY], [Place AT ([Property FRIGHTEN]), [Place AT ([Thing DOG]))])] (의미론적 접근)

<표 11> 이론적 접근을 통한 OE 심리동사 원형의미

이론	중심의미	학자	근거
통사론	경험자 -ed	Arad(1998)	OE 심리동사는 경동사 make가 있는 이중동사구조로 외부 논항인 자극이 내부 구조인 '경험자 -ed'를 보충어로 취함.
의미론	경험자 -ed	Croft(1993)	OE 심리동사 문장은 CAUSE Event로서 외부 자극이 내부 경험자의 감정 상태를 일으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b)에서 경동사 구조의 도입을 통해, (32a)의 심리동사는 통사적으로 the boy frightened가 가장 깊은 구조 속에 들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32c)를 통해 의미론적으로, 심리동사는 CAUSE Event로서 BOY FRIGHTEN라는 경험자의 감정 경험이 문장의미의 가장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코퍼스 분석 결과는 이론적 접근과 달리, OE 심리동사마다 다른 원형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는 '자극 논항 *-ing*'를 중심의미로 사용하며,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는 '경험자 논항 *-ed*'를 중심의미로 사용한다. amuse는 중립적이다. 아래 <표 12>을 통해 영어 원어민 코퍼스 결과를 다시 제시한다.

<표 12> 코퍼스에서 영어 원어민의 각 OE 심리동사별 -ing, -ed 우세 분류

자극 -ing 우세 (자극 중심 OE 심리 동사)	경험자 -ed 우세 (경험자 중심 OE 심리동사)	동일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	amuse

영어 원어민 코퍼스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의 분류처럼 여겨지던 OE 심리동사는 자극 중심 OE 심리동사와 경험자 중심 OE 심리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코퍼스 분석 결과는 언어학자의 내성적 분석과 실제 언어 사용자의 심리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적 자료인 코퍼스의 언어자료의 빈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학자의 내성적 분석을 코퍼스의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의 문헌(Connine et al, 1984; Gamsey et al., 1997; Roland & Jurafsky, 1997)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의 코퍼스 결과를 통해 제시된 OE 심리동사의 분류가 어느정도 타당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인간의 감정에 대한 여러 주요 분류법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결과와 대조 비교하여, 본 연구의 새로운 분류법의 타당성 여부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이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주요한 기본 감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Shaver, Schwartz, Kirton과 O'Connor(1987)는 인간의 감정의 원형은 6가지이며, 이 6가지 기본 감정이 어휘로 표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6가지 감정을 anger, fear, joy, love, sadness, surprise라고 제시했다. 이익환과 이민행(2005, p. 99)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기본 감정을 Ortonty와 Turner(1990)을 재인용하여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였는데, 아래 <표 13>이다.

<표 13> 인간의 기본 감정 주요 연구

학자	인간의 기본 감정
Arnold(1960)	Anger, aversion, courage, dejection, desire, despair, fear, hate, hope, love, sadness
Ekman(1982)	Anger, disgust, fear, joy, sadness, surprise
Frijda(1986)	Desire, happiness, interest, surprise, wonder, sorrow
Gray(1982)	Rage and terror, anxiety, joy
Izard(1971)	Anter, contempt, disgust, distress, fear, guilt, interest, joy, shame, surprise
James(1884)	Fear, grief, love, rage
McDougall(1926)	Anger, disgust, elation, fear, subjection, tender-emotion, wonder
Mowrer(1960)	Pain, pleasure
Oatley & Johnson Laird(1987)	Anger, disgust, anxiety, happiness, sadness
Panksepp(1982)	Expectancy, fear, rage, panic
Plutchik(1980)	Acceptance, anger, anticipation, disgust, joy, fear, sadness, surprise
Tomkins(1984)	Anger, interest, contempt, disgust, distress, fear, joy, shame, surprise
Watson(1930)	Fear, love, rage
Weiner & Graham(1984)	Happiness, sadness

<표 13>에서는 총 35개의 감정명사가 나타나는데, 9회 나타난 fear가 가장 공통적인 감정으로 여겨지며, 9회부터 2회까지 순차적으로 나타내면, fear, anger, disgust, joy, sadness, surprise, rage, love, happiness, interest, shame, wonder, distress, anxiety, contempt, desire이다. 이러한 기본 감정의 분류를 통해 가장 주요한 감정은 상위 빈도 6개인 fear, anger, disgust, joy, sadness, surprise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기본 감정의 빈도를 근거로 하여, 9회부터 4회를 핵심 감정으로, 2회-3회를 2차 감정으로 정리를 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4> 감정의 층위와 OE 심리동사 중심 의미

기본 감정 주요 문헌 (이익환, 이민행, 2005, 수정)	본 연구의 OE 심리동사 분류	
핵심 감정 (9회 - 4회 빈도) fear, anger, disgust, **joy**, sadness, **surprise**, rage	'경험자 -ed' 중심 의미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
2차 감정 (2회 – 3회 빈도) love, happiness, **interest**, shame, wonder, distress, anxiety, contempt, desire	'자극 -ing' 중심 의미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표 14>를 통해 두 분류의 대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 감정의 상위 빈도인 joy, surprise등과 하위빈도의 interest가 본 연구의 '경험자 *-ed*' 원형의미 OE 심리동사 surprise, please, satisfy와 '자극 *-ing*' 원형의미 OE 심리동사인 excite, interest, bore와 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의 비교를 통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핵심 감정을 표현하는 심리동사는 유기체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 생존을 위해 유기체가 경험하는 감정을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경험하는 경험자 논항을 주어로 가지며, 이러한 경험을 '*-ed*' 형태로 나타낸다. 즉 이러한 핵심 감정을 나타내는 OE 심리 동사는 '경험자 논항 *-ed*'를 원형의미로 갖는다. 본 연구의 코퍼스 분석에서 보이는 것처럼, OE 심리동사 중에서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는 기본 감정이며, '경험자 논항 *-ed*'가 원형의미이다.

반면, 2차 감정은 흥미(interest)를 위주로 하는 부가적인 감정형태이며, 유기체를 경험자 주어로 삼기보다 외부 자극을 주어로 사용하여, 그 외부 자극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2차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표현들은 '자극 논항 *-ing*'를 원형의미로 가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코퍼스 분석에서 제시한 것처럼, OE 심리 동사 중에서, excite, interest, frighten, bore, shock는 2차 감정으로서 '자극 논항 *-ing*'가 원형의미이다.

비슷한 '놀라움'이라는 심리를 보이는 것 같지만, surprise는 핵심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심리동사로서 '경험자 논항 *-ed*'를 원형의미로 가지며, shock는 2차 감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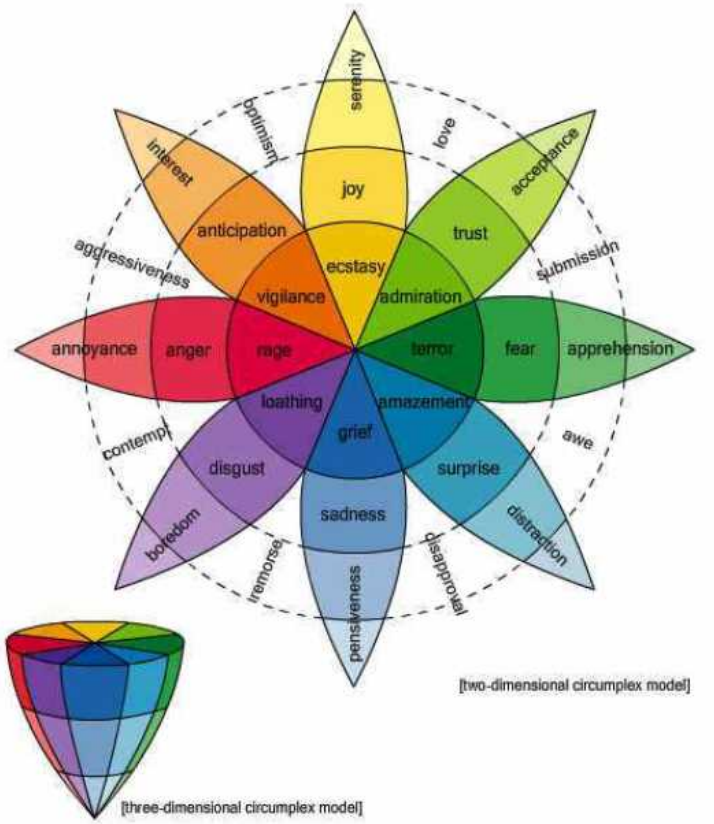
을 나타내는 심리동사로, '외부 자극 논항 *-ing*'를 원형의미로 가진다는 사실 역시 매우 흥미로우며, '놀라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주어에 따라 다른 동사의 사용과 연관되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기본 감정과 2차 감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자극 *-ing*' 원형의미 중에서 frighten과 shock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핵심감정 중 가장 주요한 감정은 fear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자극 *-ing*' 중심 OE 동사인 frighten과 shock은 2차 감정보다는 핵심감정인 fear와 상관성이 있는 감정표현이다. 원어민 코퍼스의 빈도 연구 결과를 통해 두 개의 동사의 빈도를 살펴보면, frightening은 51.6%이며, frightened는 48.4%로 빈도차이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shocking은 51.9%이며, shocked는 48.1%이어서, 역시 빈도차이가 매우 적다. 따라서 두 개의 동사는 비록 자극 *-ing* 중심 심리동사이지만, -ing와 -ed차이가 적어, 경험자와 자극 주어에 모두 강하게 반응하는 동사 부류로 추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논의이다. 원어민 심리 실험의 결과가 이를 반영하는데, frightening은 37% 빈도이며, frightened는 63%로 오히려 frightened의 빈도가 보다 높았다. shocking은 53.6%이며, shocked는 46.4%로서 마찬가지로 빈도가 매우 근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frighten과 shock은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듯하며, 두 가지 원형의미 모두에 관여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감정의 대립과 강도에 대해 살펴본 Plutchik(1980)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겠다. Plutchik은 기본 감정을 세분화하여 '감정팽이'라는 형태로 제시하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감정은 서로 대립되는 감정이 있으며, 감정의 정도에 따라 강, 중, 약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0> Plutchik의 감정 팽이

감정의 가장 강한 내부에는 ecstacy, admiration, terror, amazement, grief, loathing, rage, vigilance가 있으며, 중간 강도에는 surprise, sadness, disgust, anger, anticipation, joy, trust, fear가 있으며, 강도가 약한 외부에는 interest, serenity, acceptance, apprehension, distraction, pensiveness, boredom, annoyance가 있다. 또한 감정의 대립에서도 surprise부류와 interest 부류의 대조가 눈에 띈다.

아래 <표15>를 통해 이러한 감정의 강도를 통한 Plutchik의 분류와 본 연구의 OE 심리동사 분류를 비교하며 설명하겠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5> Plutchik 감정 강도 분류와 본 연구 비교

Plutchik 감정동사 강도 분류	본 연구 OE 심리동사 분류
강: ecstacy, admiration, terror, amazement, grief, loathing, rage, vigilance	
중: **surprise,** sadness, disgust, anger, anticipation, **joy**, trust, fear	경험자 -ed 중심 OE 심리: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
약: **interest,** serenity, acceptance, **apprehension**, distraction, pensiveness, boredom, annoyance	자극 -ing 중심 OE 심리: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표 15>를 통해 감정의 강도가 중간인 surprise와 joy와 경험자 -ed 중심 OE 심리동사 분류와 감정의 강도가 약인 interest, apprehension과 자극 -ing 중심 OE 심리동사의 exicte, interest, frighten, shock의 대응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Plutchik이 제안한 것처럼 감정의 강도는 감정을 경험하는 경험자의 내부의 강렬한 감정과 외부의 약한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의 격렬한 감정은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나타내고, 외부의 약한 감정은 자극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Plutchik의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인간의 감정 과정과 관련한 연구도 이루어졌었는데, 김은영(2005)는 지각과 인지, 감정의 흐름에 대해 '감정은 지각이나 인지를 전제로 하되, 발생한 감정은 비의도적이다(p. 106)'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나는 호랑이가 무서워'라고 한다면, 호랑이가 자신에 덤빌 수도 있다는 등의 판단이나 믿음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 감정을 표현한 감정동사 구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Schacher-Singer(1964)는 감정의 발생에 대해 '자극 - 생리적 각성 - 인지적 해석 - 감정'의 순서를 주장한다. 즉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된 생리적 각성 상태를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감정의 강도와 질이 결정된 것으로 여겼다. 비슷하게 Lazarus(1968)는 '자극 - 인지적 해석 - 감정'의 순서를 제시하며, 생리적 각성의 측면을 경시하고 자극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중심으로 감정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6> 감정의 흐름과 OE 심리동사 분류

Shcacher-Singer 감정 과정 (수정 제안)	본 연구 OE 심리동사 분류
자극 – 생리적 각성 – 인지적 해석 – 감정 – **경험자**	경험자 –ed 중심 OE 심리: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
자극 – 생리적 각성 – 인지적 해석 – 감정 – **자극**	자극 –ing 중심 OE 심리: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표 16>에 대해, 감정이란 자극을 보고 인지적 해석을 통해 유기체가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경험자 -ed 중심 OE 심리동사는 자극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유기체의 감정을 주요 논항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라면, Shcacher-Singer의 과정을 약간 수정하여, 자극 –ing 중심 OE 심리동사를 통한 감정은 자극을 통한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해석을 통해 감정보다는 자극을 우선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 매우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며, 자극 –ing 중심 OE 심리동사를 통한 감정이든, 경험자 –ed 중심 심리동사든 즉각적인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정리해보면, 본 연구의 영어 원어민 코퍼스 결과를 통해, 자극 중심 OE 심리 동사와 경험자 중심 OE 심리동사를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류를 감정에 대해 분류한 주요 연구와 비교했을 때, 기존 연구와 큰 틀이 상당히 일치하며, 감정동사 분류의 또다른 분류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기본 감정을 핵심감정과 2차 감정으로 나눌 때 핵심감정은 경험자 중심 OE 심리동사와 2차 감정은 자극 중심 OE 심리동사와 대응한다. Plutchik의 감정의 강도 분류에서 약한 강도의 감정은 자극 중심 OE 심리동사와 대응하고, 중간 강도의 감정은 경험자 중심 OE 심리 동사와 대응한다. Shcacher-Singer의 감정 과정에 대한 주장에서, 자극을 파악하고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해석이후에 감정을 느끼는 과정에서 경험자 중심 OE 심리동사의 동사 부류는 경험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자극 중심 OE 심리동사는 경험자의 감정보다는 자극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아래 (33)에서 원어민 코퍼스에서의 OE 심리동사 용례를 출처와 함께 일부 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한다.

33) a. It's very exciting to see us with this group of parks. (Minneapolis Star Tribune)
b. We are quite satisfied with the portfolio we have today. (Business Insider)
c. I know electoral politics seems boring, but we need to understand. (Salon)
d. I am emotionally drained and exhausted. (Washington Post)
e. I was still too embarrassed to talk about certain things. (Education Dixie Dupree)
f. People are tired of losing loved ones. (Chicago Sun Times)
g. It is interesting that other results from the market did not have expected results. (Sport Marketing Quartely)

5.2 영어 원어민 심리실험의 의미

영어 원어민 코퍼스와 심리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차이가 있는 동사는 frighten, satisfy의 경우이며, 다른 10개의 OE 심리동사는 코퍼스와 심리동사에서 -ing, -ed 중심의미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표 17> 영어 원어민의 코퍼스와 심리 실험에서 OE 심리동사 비교

코퍼스		심리 실험	
-ing 우세	-ed 우세	-ing 우세	-ed 우세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 amuse	interest, bore, excite, shock, **satisfy**	embarrass, tire, please, surprise, amuse, **frighten**, exhaus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를 통해 기본 감정 동사와 2차 감정동사에 따른 -ing, -ed 원형의미가 매우 일관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경험적 데이터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기본 감정 동사인 피곤함, 놀라움, 당황함 등은 '경험자 *-ed*'를 원형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2차 감정 동사인 흥미, 관심 등은 '자극 *-ing*'를 원형의미로 가지고 있다.

반면에, 심리 실험에서 frighten은 '경험자 *-ed*' 우세, satisfy는 '자극 *-ing*' 우세이어서, 코퍼스의 데이터와는 차이를 보였다. 아래부터는 이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 모형과 코퍼스 데이터와의 차이, 코퍼스 데이터와 심리실험의 차이를 순차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영어 원어민의 OE 심리 동사 코퍼스 데이터는 통사론, 의미론에서 살펴본 이론적인 고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통사론, 의미론을 근거로 살펴보면, 언어이론상으로는 내부적으로 경험자와 감정상태가 있고, 그 외부에 자극이 나타난다. 따라서 통사론과 의미론을 통해 살펴본 모든 OE 심리동사의 원형의미는 '경험자 논항 *-ed*'구조이다(2장 문헌연구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코퍼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OE 심리동사의 원형의미는 기본 감정동사와 2차 감정동사로 분류되었으며, 기본 감정동사는 '경험자 논항 *-ed*', 2차 감정동사는 '자극 논항 *-ing*'가 원형의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법 이론과 코퍼스 데이터의 차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이론적 모형인 통사론과 의미론은 문법적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OE 심리동사를 전체 유형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며, OE 심리동사 유형 전체가 동일한 내부 통사, 의미적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E 심리동사의 하위분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언어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통사론은 기본적으로 어휘 특성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며, 문장 구성에 대한 인간의 언어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OE 심리동사의 분석 역시 개별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어휘론(lexicology)과는 차이가 있다. 즉 surprise라는 동사가 문장으로 대입될 때, 통사론과 의미론의 문법 시스템에 따라 주어, 목적어와 일치관계를 통해 적절하게 문법에 맞는 형태를 취하고, 의미관계 역시 다양한 문법 요소와의 적법성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어휘적 특성이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코퍼스 언어학의 데이터는 항상 이와 같은 근거로 결과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코퍼스 언어학의 결과는 머릿속사전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코퍼스 데이터는 해당 언어를 사용한 언어사용자가 만든 데이터라는 점에서, 특정 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 표현에 대한 언어사용자의 인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코퍼스 데이터에서 특정 단어가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을 구성하는 의미장(semantic field)에서 그 단어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으며, 해당 문맥에서 검색 우선 순위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론과 코퍼스 언어학의 전제는 매우 차이가 있다. 이론적 접근에서는 어휘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유형의 통사, 의미적 속성을 밝혀내는 반면, 코퍼스 언어학은 어휘론적 배경을 가지며, 그러한 개별적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는 머릿속 사전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밝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음으로는 코퍼스 언어학과 심리 실험의 차이에 대한 논의이다. 코퍼스 언어학이 해당 단어들의 종합체인 의미장의 구성을 나타내어 준다면, 언어 심리 실험은 보다 직접적으로 해당 표현(surprise)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심리 실험에서는 surprise를 제시하여, surprise의 두 가지 의미인 '경험자 *-ed*'와 '자극 *-ing*', 둘 중에서 어느 의미가 높은 순위에 있는 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 실험의 결과가 코퍼스 결과보다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코퍼스의 데이터 분석은 모든 가능한 의미장에서 OE 심리동사 12개를 *-ing*와 *-ed* 형용사로 검색하고, 그 수치 차이를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기본 감정과 2차 감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언어 심리 실험에서는 각각의 OE 심리 동사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ing*와 *-ed*중에서 현저성을 본 것이며, 언어 사용자들은 -ing와 -ed 중에서 해당 OE 심리동사와 관련하여 우선 인출되는 형태를 소환하고, 문장을 생성한 것이다.

일반적인 OE 심리동사는 코퍼스와 심리실험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satisfy와 frighten은 상반된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코퍼스에서는 satisfy가 '경험자 *-ed* 우세'이며, frighten이 '자극 *-ing* 우세'였다. 이와 달리 심리실험에서는 satisfy가 '자극 *-ing*' 우세였으며, frighten은 '경험자 *-ed*' 우세였다.

34) a. He was frightened. (심리실험에서 우세)
b. The darkness was frightening. (코퍼스에서 우세)

35) a. The movie was satisfying. (심리실험에서 우세)
b. I was satisfied. (코퍼스에서 우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는 심리 실험이 코퍼스에 비해 직접적으로 해당 OE 심리동사의 머릿속사전의 순위를 물어본다는 것을 고려하면, 심리 실험의 결과가 해당 OE 동사의 성격을 보다 잘 반영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즉 frighten이 기본 감정으로서 유기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관련되어 지며, 경험자 논항을 주어로 하여 경험자의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satisfy는 2차 감정으로서 유기체의 경험보다는 외부 자극을 주어로 하여 외부 자극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5.3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심리실험 논의

Kim(2012)에서 주장한 것처럼, 한국어의 심리동사는 (36)의 예시처럼, 사람 경험자가 주어에 나타나는 방식이 많으므로, 영어 OE 심리동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모든 OE 심리동사에 대해 '경험자 논항 *-ed*'가 원형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의 코퍼스와 심리언어 실험의 결과는 이와 달랐다.

36) a. 철수가 놀랐다.
b. 나는 무섭다.
c. 영희는 괴롭다.
d. 나는 즐겁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 대한 OE 심리동사 가천코퍼스 분석결과, '*-ing* 우세동사'는 excite, interest, frighten, bore이며, '*-ed* 우세동사'는 surprise, embarrass, shock, exhaust, tire, satisfy, please이며, amuse는 중립적이었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에 대한 언어 처리 방식은 영어 원어민이 선택하는 방식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유일한 차이는 shock이며, 영어 원어민 분석에서는 '*-ing*'우세이지만, 한국인 학습자 분석에서는 '*-ed*'우세 빈도를 보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8> 코퍼스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 비교

우세	영어 원어민	한국인 영어 학습자
자극 -ing 우세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excite, interest, frighten, bore
경험자 -ed 우세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	surprise, embarrass, shock, exhaust, tire, satisfy, please
-ing = -ed	amuse	amuse

이는 '자극 논항'과 '경험자 논항'의 잘못된 사용을 주로 연구한 기존 연구들(손현덕과 김희숙, 2011; 이숙영과 김수연, 2016; Kim, 2012)에서, 모국어인 한국어의 간섭이 영어 심리동사의 습득을 막는 주요 요인이며, 한국인은 영어 OE 심리동사에 대해 원어민과 다른 개념을 형성한다는 연구결과(Kim, 2012)와는 다르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가 논항의 측면이 아닌, '*-ing, -ed*' 사용과 관련된 OE 심리동사의 '원형의미', 즉 '원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주제에 대하여,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심리동사를 학습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 (37)은 이러한 학습자 코퍼스에서의 OE 심리동사의 사용 예시이다.

37) a. I find the fashion is most interesting.

b. Then, driver is embarrassed and angry.

c. I felt "it's very thrilling and frightening."

d. Hotel users will be highly pleased.

e. If customers get flower, they are surprised and happy.

f. I was shocked about the truth.

g. This movie is so realistic and exciting.

h. So we keep on skiing until we feel tired. (가천 코퍼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래 표에서는 심리실험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비교하였다. 심리실험의 결과는 3개의 동사를 제외하고, 9개의 동사가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 양쪽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hock, satisfy, amuse 세 개의 동사는 대립적으로 사용되어 졌다. 한국인 학습자는 shocked, satisfied, amusing에서 우세를 보였으나, 영어 원어민은 shocking, satisfying, amused에서 우세를 보였다.

<표 19> 심리실험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 비교

영어 원어민		한국인 영어 학습자	
-ing 우세	-ed 우세	-ing 우세	-ed 우세
interest, bore excite, shock, satisfy	embarrass, tire, please, surprise, amuse, frighten, exhaust	interest, excite, bore, amuse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please, frighten, shock, satisfy

이처럼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OE 심리 동사의 원형의미의 일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우선은 입력의 영향이며, 다음은 감정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이다. 영어 원어민 코퍼스 사용 분석의 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인 학습자들 역시 그러한 원어민 사용자들의 빈도가 반영된 입력을 그대로 교육 받았으며, 이것이 출력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교육도구와 매체를 통해 OE 심리동사에 대해 학습한 방식이 결국 OE 심리동사의 원형의미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어민 사용자들이 interested보다 interesting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빈도는 학습자들의 교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러한 원형의미의 개념화가 영어 학습자에게도 전달되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인 학습자의 전체 교육도구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데이터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은 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다. 아래는 중고등학교 6권의 영어 교과서 본문자료를 통해 OE 심리동사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고등영어(이병민 외, 2018), 고등영어 1(윤민우 외, 2017), 고등영어 독해와 작문(권혁승 외, 2017), 중1,2,3학년 영어(김성곤, 2017). 약간의 분포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12개중 9개의 OE 심리동사(surprise, amuse, embarrass, interest, shock, bor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xhaust, tire, satisfy)의 출현 빈도가 영어 원어민 심리동사의 코퍼스 빈도 분포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중/고교 6권 영어교과서의 OE 심리동사 빈도

No.	심리동사	중고교 6권의 영어 교과서 OE 심리동사 빈도	
1	surprise	surprising **surprised**	2 10
2	amuse	amusing amused	2 0
3	excite	exciting excited	21 36
4	embarrass	embarrassing **embarrassed**	4 22
5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89 70
6	frighten	frightening frightened	1 6
7	shock	**shocking** shocked	7 2
8	bore	**boring** bored	18 8
9	exhaust	exhausting **exhausted**	0 2
10	tire	tiring **tired**	1 30
11	satisfy	satisfying **satisfied**	1 9
12	please	pleasing pleased	1 1

위의 <표 19>에서, 원어민 코퍼스의 OE 심리동사와 분포가 다른 동사는 excite와 frighten이다. 원어민 코퍼스에서는 exciting, frightening의 빈도가 높았으나, 교과서에서는 excited와 frightened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에서, excite의 경우는 교과서의 특수한 상황 설정과 상관이 있다. 교과서에서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I am excited'라고 하며, 새로운 학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이 여러 번 사용되었다. 그러나 '신학기가 많이 기대된다.'라는 문장을 고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다면, 오히려 사물을 주어로 하는 'exciting'의 빈도가 많은 것이 타당하지만 화자 본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들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frighten은 이전의 논의에서처럼, '자극'과 '경험자' 모두에 반응하는 OE 심리동사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과서의 빈도가 원어민 코퍼스의 빈도를 상당히 반영한다는 논의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접근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언어표현 방식에 대한 선천적 언어직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OE 심리동사 '*-ing*'와 '*-ed*'의 이분화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기본 감정과 2차 감정(표 19)에 대한 언어 사용자로서의 직관이 보편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한국인 학습자에 있어서도, 기본 감정동사는 유기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감정 상태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험자 논항 *-ed*'를 원형의미로 갖고, 2차 감정동사는 흥미와 관련되어지므로, 외부의 자극을 먼저 나타내려고 하므로, '자극 논항 *-ing*'구조가 원형의미가 된 것이다. '*-ing*'와 '*-ed*'형이 '능동'과 '수동'으로 2분지로 명확히 대비되어 지는 문법이므로, 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본 감정동사인 surprise, embarrass는 '경험자 논항'의 감정을 나타내어 surprised, embarrassed로 연관짓고, 2차감정동사인 excite, interest는 '자극 논항'의 출현을 나타내어 exciting, interesting으로 습득되어 진 것이다.

또 하나 한국인 학습자의 코퍼스 분석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착화와 과다사용에 대한 것이다. OE 심리동사의 원형의미에 대해, 일단 한번 연관 지은 *-ing, -ed*형태는 각각의 OE 심리동사의 원형으로 고착화되어 사용되어 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학습자 코퍼스인 가천 코퍼스의 결과와 영어 원어민 COCA에서의 각 심리동사의 사용을 비교해보면, 한국인 학습자들의 세부적인 사용이 원어민과 다르게 *-ing*와 *-ed*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8개의 동사에서 과도한 사용을 보이고 있다: surprised(87.9%), embarrassed(89.7%), shocked(77.2%), boring(70.9%), exhausted(93%), tired(98.9%), satisfied(95.2%), pleased(86%).

이러한 어느 한쪽의 특징적인 과도한 사용은 논항의 선택의 부적절함에 대해 주로 연구한 과거의 문헌들의 주장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문법적으로는 '경험자 논항'이 주어가 되면 *-ed*형태의 수동표현을 쓰고, '자극 논항'이 주어가 되면 *-ing*형태의 능동 표현을 써야 하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논항'과 '술어'의 일치관계보다 특정 OE 심리동사와 *-ing, -ed* 형태의 일치관계에 대해 고정된 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태을 학습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주어 논항'이 무엇인가 보다는 OE 심리동사별로 *-ing, -ed*를 고정화 시키고, 이를 고착화 시켰을 수 있다. 아래의 예들은 학습자 코퍼스에서 잘못 사용된 OE 심리동사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38) a. So I am interesting (→ interested) about beauty care products for man.

b. Because story is surprised (→ surprising) and fun.

c. I'm not boring (→ bored)and calm or happy.

d. Low economic strength can be embarrassed (→ embarrassing).

e. Serial killer was also a neighbor. It was shocked.(→ shocking)

f. When I was traveled, laundry is very satisfied. (→ satisfying)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에서 잘못된 사용 예)

예를 들어, interest는 주어 논항이 무엇이든 'interesting'만을 사용하려 한다거나, surprise는 'surprised'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착화된 사용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OE 심리동사 습득의 문제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인 학습자의 코퍼스와 심리 실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OE 심리동사 습득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학습현장에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우선,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직접적으로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흥미를 위주로 하는 2차 동사인 excite, interest, bore는 '자극'을 주어로 하여 '*-ing*'를 사용하는 표현이 빈도가 높으며, 놀라움, 피곤함, 만족을 나타내는 핵심동사인 surprise, tire, satisfy는 '사람'을 주어로 하여 '*-ed*'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어민 표현의 사용빈도를 제시하여 OE 심리동사의 습득을 유도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올바르게 번역하는 기계적인 의사소통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원어민의 직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돕는 것이며, 제2언어 습득의 목표와 보다 부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나온 화자가 'the movie was interesting'이라고 말하는 것이, 'I was interested'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비슷한 문맥에서 'I was surprised'가 'the movi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as surprising'보다 원어민의 직관과 유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빈도에 의한 OE 심리동사의 차이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들은 우리말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게 되고, L2와 L1의 차이는 학습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교육현장의 시사점은 고착화와 관련된 것이다. OE 심리동사는 '자극 is *-ing*', '경험자 is *-ed*'형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문법이다. 그러나 위의 (38)의 문법적으로 잘못된 사용의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습자들은 동사에 따라 *-ing*와 *-ed*를 고정화시키고, 주어와 일치관계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문법적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학습 시에 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줌으로써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interesting'은 'interested'보다 빈도가 높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노출의 결과 주어여부에 상관없이 'interesting'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surprised'는 'surprising'보다 빈도가 높으며, 학습자들은 주어를 비교하지 않고, 'surprised'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어가 '사물 자극'임에도 적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암기식 학습방식에서 보다 진화한 것으로, 학습자의 인지체계에 호소하는 인지적 학습방식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감정과 언어에 대해 보편적인 인지 방식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학습자입장에서도 매우 이해하기 쉽고 적용상의 수월함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결론

본 연구는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OE 심리동사)의 두 가지 논항과 관련된 중심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OE 심리동사에 대한 원형을 '경험자 논항 *-ed*'와 '자극 논항 *-ing*'의 두 가지로 나누어, 12개의 주요 OE 심리동사에 대해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영어 원어민의 원형의미를 밝히기 위해,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에 나타나는 심리동사를 분석하였으며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실험을 실시하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OE 심리동사 습득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인 가천 코퍼스 데이터의 심리동사를 분석하였으며, 역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실험도 실시하였다.

우선, COCA의 빈도 분석 결과, 이론적 모형과는 다르게, 영어 원어민 사용자들이 각 동사들에 대해 똑같은 형태의 원형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OE 심리동사는 기본 감정과 2차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로 다시 분류되어지며, 언어사용자는 두 개의 동사부류에 대해 다른 원형의미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언어사용자의 직관이 코퍼스의 빈도를 통해 나타났다. 기본 감정을 보여주는 OE 심리동사인 *surprise, embarrass, exhaust, tire, satisfy, please*는 '경험자 논항 *-ed*'의 빈도가 높았으며, 2차 감정을 전달하는 심리동사인 *excite, interest, frighten, shock, bore*에 대해서는 '자극 *-ing*'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기본적인 감정동사는 유기체의 감정을 보여주고자 사용되므로 '경험자 논항 *-ed*'를 원형으로 취하고, 2차적인 감정동사는 흥미 등을 일으키는 외부 자극을 보여주고자 하며, '자극 논항 *-ing*'가 원형의미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OE 심리동사의 습득을 연구하기 위해, 학습자 코퍼스인 가천 코퍼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 역시 영어 원어민 사용자들과 매우 유사한 원형의미를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surprise, embarrass, shock, exhaust, tire, satisfy, please*에서 '*-ed*'에 대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excite, interest, frighten, bore*에 대해서는 '*-ing*'사용에 대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선, 한국인 학습자들은 그들이 학습한 교재들에서 원어민 코퍼스인 COCA와 비슷한 빈도의 입력을 받았으며, 이러한 빈도 비율의 영향이 실제 출력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감정을 나타내는 OE 심리동사의 보편적인 사용에 대해, 언어사용자로서 원어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 유사한 언어직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직관이 심리동사의 원형의미의 판단을 강화시켰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형의미에 대한 선택은 고착화로 이어졌으며, 주어가 '외부자극 논항'이건, '경험자 논항'이건, 동사에 따라 정해진 '*-ing*'와 '*-ed*'만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져, 심리동사 습득에 있어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심리실험에서는 원어민 30명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 35명을 대상으로 문장 생성 실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코퍼스와 비교하였다. 심리실험의 결과는 코퍼스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심리 실험의 결과를 머릿속 사전에서의 *-ing*, *-ed* 형태의 위치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원형의미는 머릿속사전에서 우선 검색되는 상위에 위치한 단어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코퍼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본 감정동사는 경험자의 1차적 감정 상태인 피곤, 놀람, 두려움 등이며, 이를 표현하는 OE 심리동사는 '경험자 *-ed*' 형태가 머릿속사전에서 상위에 위치하며 우선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차 감정인 흥미, 흥분 등은 '자극 *-ing*' 형태가 머릿속 사전에서 상위에 위치하여, 우선 검색되고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의 크기와 관련되어진다. 비교대상인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의 크기가 작다. 이 부분에서 논문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의 주장은 빈도상으로 어떤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를 연구하여, 원어민의 직관을 파악하고 이를 보편적인 감정과 관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정 동사가 *-ing*, *-ed* 형태 중에서 오직 하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ing*, *-ed*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OE 심리동사의 문법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강범모. (2011). *언어 풀어쓴 언어학 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강호영. (2018). 영어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에 대한 코퍼스 연구. *인문학연구 56,* 351-380.

김성곤. (2017).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서울: 두산동아.

김세중. (1994). *국어 심리술어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은영. (2005). 현대 국어 감정동사의 범위와 의미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16*, 99-124.

권혁승, 임희정, 오건석, 강신자, 윤소영. (2017). *고등 영어 독해와 작문*. 서울: 동아출판.

권혁승, 정채관. (2012). *코퍼스 언어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손현덕, 김희숙. (2011). 한국인 영어 사동 심리동사 습득 문제연구. *영어교과교육, 10*(3), 139-162.

윤민우, 박선호, 임희정, 장선미, 신영학, 신지영, Tae Hee Lee. (2017). *고등 영어 I*. 서울: 동아출판.

이병민, Kim Christian, 이주연, 이정은, 임효신. (2018). *고등영어*. 서울: 동아출판.

이숙영, 김수연. (2016).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심리동사 습득에 관한 연구-이해와 산출과제 결과 차이를 중심으로. *영어학연구, 22*(3), 253-272.

이익환, 이민행. (2005). *심리동사의 의미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조명한, 이정모, 김정오, 신현정, 이광오, 도경수, 이양, 이현진, 김영진, 김소영, 고성룡, 정혜선. (2004).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최지웅. (2013). 가천 코퍼스. http://koreanlearnercorpusblog.blogspot.kr/p/corpus.html.

AntConc(콘코던스 소프트웨어), http://www.laurenceanthony.net/software.html

Arad, M. (1998). Psych-notes, *In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pp. 203-223). London, UK: University College of London.

Arnold, M. B.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http://corpus.byu.edu/coca/.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roft, W. (1993). Case marking and the semantics of mental verbs. In. James Pustejovsky (Ed.), *Semantics and the Lexic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Connine, C., Ferreira, F., Jones, C., Clifton, C., & Frazier, L. (1984). Verb frame preference: descriptive norm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3*, 307-319.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547-619.

Ekman, P., Friesen, W. V., & Ellsworth, P. (1982). What emotion categories or dimensions can observers judge from facial behavior? In P. Ekman (Ed.), *Emotion in the human face* (pp. 39-55).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ster, K. I. (1979). Levels of processing and the structure of the language processor. In W. E. Cooper, & E. C. T. Walker (Eds.), *Sentence Processing: Psycholinguistic Studies Presented to Merrill Garrett.* Hillsdale, NJ: Erlbaum.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msey, S. M., Perlmutter, N. J., Myers, E. & Lotocky, M. A. (1997). The Contributions of verb bias and plausibility to the comprehension of temporarily ambiguous sentence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7*, 58-93.

Gray, J. A. (1982).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Gries, St. Th., & Stefanowitsch, A. (2004). Extending collostructional analysis: a corpus-based perspective on 'alter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9*(1), 97-129.

Grafmiller, J. (2013). *The semantics of Syntactic Choice: An Analysis of English Emotion Verbs.* Ph.D. Thesis. Stanford University.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Izard, C. E. (1971). *The face of emotion*. New York, NY: Appleton-Century-Crofts.

James, W. (1884). What is an emotion? *Mind, 9*, 188-20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Just, M. A., & Carpenter, P. A. (1987). *The Psychology of Reading and Language Comprehension*. Newton, MA: Allen and Bacon.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UK: MIT Press.

Kim, J.-H. (2012). *Animacy Effect on L2 Acquisition of English Psychological Verbs.* MA Thesis. Korea University.

Lakoff, G. (1970). *Irregularity in Syntax*. New York, NY: Holt, Rinhart and Winston.

Larson, R.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391.

Lazarus, R. S. (1968). Emotions and adapt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relations. In W. J. Arnold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6).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s.*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cDougall, W. (1926).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Boston, MA: Luce.

Mowrer, O. H. (1960). *Learning theory and behavior*. New York, NY: Wiley.

Oatley, K., & Johnson-Laird, P. N. (1987). Towards a cognitive theory of emotions. *Cognition & Emotion, 1*, 29-50.

Ortony, A. & T.J. Turner. (1990). What's basic about emotions?. *Psychological Review, 97*(3), 315-331.

Panksepp, J. (1982). Toward a general psychobiological theory of emotions.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5*, 407-467.

Plutchik, R., & Kellerman, H. (1980).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New York: NY: Academic Press.

Postal, P. M. (1971). *Cross-Over Phenomena.*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Pullum, G. K. (1987). Implications of English Extraposed Inrrealis clauses. *ESCOL '87,* 260-270.

Radford, A. (2004). *Minimalist Syntax.*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land, d. & Jurafsky, D. (1997). Computing verbal valence frequencies: Corpora versus norming studies. Poser session presented at the CUNY sentence processing conference, Santa Monica, CA.

Saeed, J. I. (2003). *Semantics.*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chachter, S. (1964). The interaction of cognitive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 New York: NY: Academic Press.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G.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Talmy, L. (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3: Grammai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149.

Teubert, W., & Krishnamurthy, R. (2007). Corpus Linguistics: Critical Concepts. *Linguistics 7.* London: Routledge.

Tomkins, S. S. (1984). Affect theory.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163-195). Hillsdale, NJ: Erlbaum.

Watson, J. B. (1930). *Behavioris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echsler, S. (1995). *The semantic basis of argument structure.* Stanford, CA: CSLI Publiscations.

Weiner, B., & Graham, S. (1984). An attributional approach to emotional development. In C. E. Lzard, J. Kagan, & R. B.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bior* (pp. 167-191).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lection @ chosun